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먼 옛날에 이 땅에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조선은 근 3 000년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고조선에 뒤이어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섰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서군 하면서 5 00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오랜 력사입니다.

세계에는 나라가 많지만 이렇게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많지 못합니다.

조선력사에는 가지가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백만의 다른 나라 침략군대를 물리치고 조국을 지켜낸 이야기도 있고 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것을 위해서 악하고 나쁜것을 반대하여 싸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남먼저 하늘의 비밀을 알아내고 훌륭한것들을 만들어낸 이야기,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나면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세상에서 으뜸이구나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바로 그래서 력사를 공부하는것입니다.

먼저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수많은 력사내용가운데서 그 일부를 재미나는 옛이야기처럼 배웁니다.

1학년에서는 우리 나라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 살아왔는가, 고조선, 부여, 진국,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는 누가 언제 세웠고 큰 전쟁과 유명한 장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조들은 어떠한 유적유물을 남겨놓았는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1, 2학년에서 이야기형식으로 된 력사를 배운 다음 3~6학년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체계적인 력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력사학습을 잘하여 조선사람으로서의 자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훌륭한 학생이 되여야 합니다.

제1과. 우리 땅에서 산 첫 사람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안에서 한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우리 나라 땅에서 생겨나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산좋고 물맑은 평양지방은 날씨가 따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고 갖가지 짐승들이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만들어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밭이나 길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푸른 숲과 강들뿐이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생겨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가요?

평양시 중심에서 100리나마 동쪽으로 가면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굴에서 오랜 옛날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발견되였습니다.

동굴에는 원숭이, 코끼리, 물소와 같은 짐승뼈들이 쌓여서 돌처럼 굳어진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운 지방에서 사는 짐승들이 살았으니 그때 이곳이 매우 더웠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굴에서는 여러가지 돌쪼각들도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얼핏 보면 여느 막돌쪼각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력사학자들은 이 돌들이 맨 처음 세상에 생겨난 사람들이 만들어쓴 로동도구라는것을 밝혀냈습니다.

검은모루유적 전경

그때 사람들은 돌을 다른 돌우에 내리쳐서 깨진 쪼각을 가지고 풀뿌리를 캐거나 짐승의 고기를 베는데 썼습니다.

그들은 농사라는것을 몰랐습니다. 수십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나무열매를 따거나 풀뿌리를 캐고 작은 짐승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집도 지을줄 몰라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흑우리의 이 동굴유적을 검은모루유적이라고 합니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돌도구들

처음으로 발생한 사람들이 먹을것을 마련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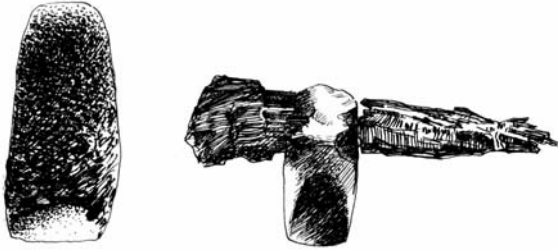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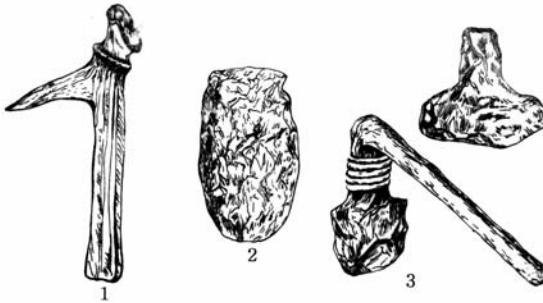
동굴에서의 생활

사람이 생겨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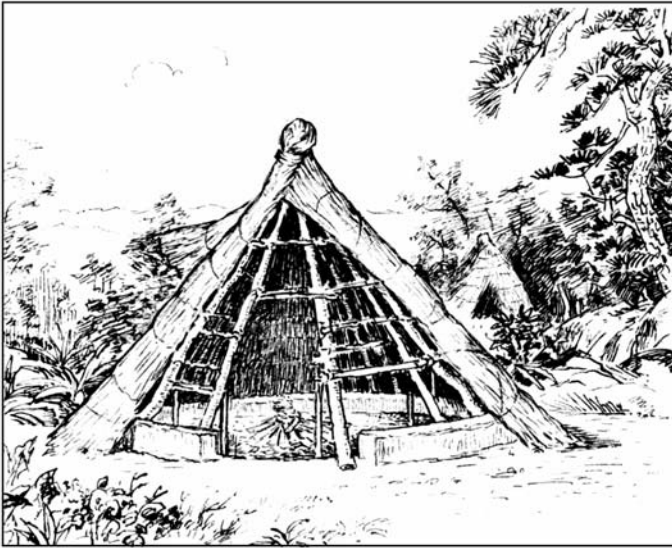
그동안 사람들은 지혜도 많아지고 힘도 자랐습니다.

도구를 만드는것도 돌을 갈아서 매끈하고 쓸모있는 도끼나 괭이 지어는 대패, 칼 같은것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갈아서 만든 돌도끼

1 2 3

농사하는데 쓴 도구들

1. 뿔괭이 2. 돌보습 3. 돌괭이

집도 지었습니다. 땅을 얼마간 파고 나무로 고깔모양을 한 다음 풀이나 짐승가죽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 움막집

사람들은 이 시기부터 농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먹을수 있는 식물의 씨를 거두어들이다가 땅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땅에 묻혔던 씨에서 싹이 나오더니 자라서 탐스러운 이삭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뿐아니라 집짐승도 길렀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짐승새끼를 잡으면 곧 잡아먹지 않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흙으로 빚어구운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동(구리)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도구도 만들어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러서 다른 금속을 섞어쓰니 아주 굳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동입니다.

여러가지 질그릇

청동으로는 도끼, 칼, 활촉 등 여러가지 도구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청동기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농사도 짓고 짐승도 잡으니 사람들의 생활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나라 땅에서는 멀고먼 옛날부터 사람이 발생하여 다갈

이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력사에서는 그 시대를 가리켜 《원시사회》라고 합니다.

원시사회는 백수십만년이나 계속되였습니다.

제2과. 조선민족의 첫 나라를 세운 단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자체로 세운 나라입니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100리쯤 떨어진 강동군 문흥리에는 대박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대박산의 넓은 기슭에는 돌로 만든 웅장한 건축물들이 자리잡고있습니다.

1 994개의 커다란 돌들을 잘 다듬어 22m나 되게 높이 올려쌓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단군릉입니다.

단군은 오랜 옛날 이 땅우에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단군릉은 바로 단군의 무덤이며 그안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뼈가 보존되여있습니다.

단군릉주위의 네 귀에는 단군릉을 보호하는듯 돌로 쪼아만든 용맹스러운 조선범조각상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긴 수염을 드리우고 아주 위엄있게 서있는 사람조각상들은 단군의 네 아들과 가까운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이밖에도 단군릉주변에는 여러가지 돌조각상들이 훌륭히 세워졌습니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천여년전에 평양에서 태여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키가 크고 지혜가 뛰여났던 단군은 일찍부터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마음을 품고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이 땅에 나라(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관리도, 법이나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청년시절을 보낸 단군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말타기와 칼쓰기, 활쏘기 등 무술을 련마하고 지혜를 키워나갔습니다.

드디여 단군은 높고낮은 여러 관리들을 뽑고 법과 군대도 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고 외적을 물리치는데도 유리한 평양에 성을 쌓고 궁전과 건물들을 지어 나라의 수도로 꾸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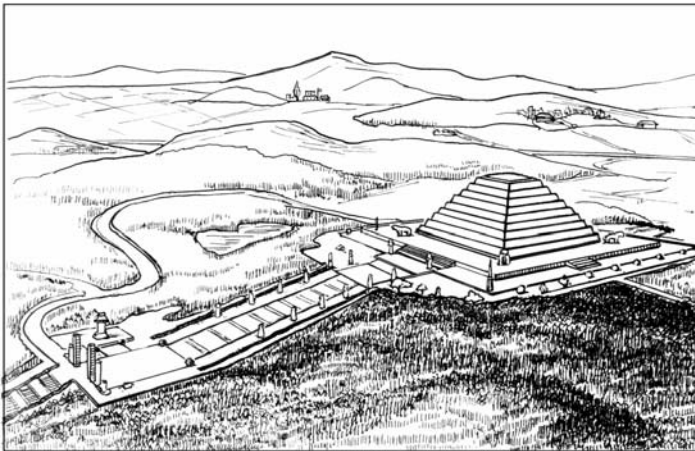
드디여 단군은 이 땅에 국가가 세워졌다는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라이름은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옛날의 조선이라는 뜻에서 《고조선》이라고 불러오고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남보다 훨씬 먼저 나라를 세우고 하나의 민족으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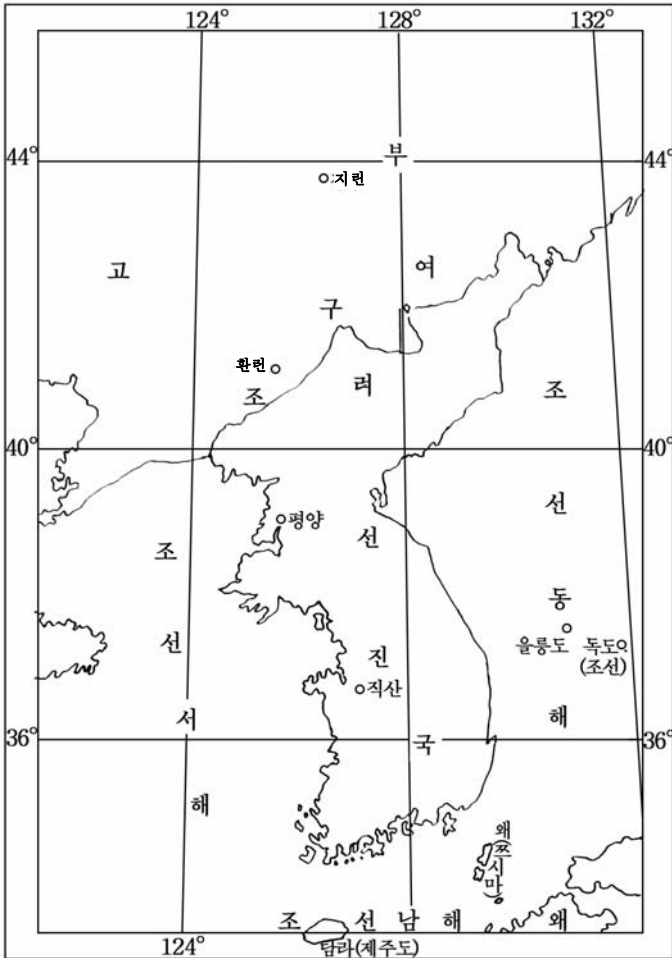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단군을 조선민족의 시조왕(나라를 세운 첫 왕)으로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훌륭히 건설하여 그의 업적을 길이 전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오늘 7천만 조선인민은 단군을 조상으로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더욱 굳게 단합되여나가고있습니다.

단군릉 전경

제3과. 강상무덤에 묻힌 노예들

단군이 세운 나라 고조선은 넓은 땅을 차지한 큰 나라로 되였습니다.

넓고넓은 고조선안에는 또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부여와 구려가 있었고 남쪽에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고조선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였으나 점차 고조선에서 떨어져나가 독립적인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들의 위치

이 나라들은 노예주들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고 노예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던 세상이였습니다.

노예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랴오닝성에 옛날 고조선의 한 노예주가 살았습니다.

그놈은 대단한 권력과 많은 땅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노예만 해도 몇백명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놈은 노예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으면서 거들먹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살이라도 살것 같던 노예주가 늙어서 죽게 되였습니다.

그놈을 무덤에 묻는 날이였습니다.

우악스러운 병졸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무덤곁으로 끌고왔습니다.

농장에서 밭을 갈던 노예들, 목장에서 집짐승을 기르던 노예들, 창고지기와 대문지기,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던 녀자들과 심부름군아이 등 남녀로소가 100명도 훨씬 넘었습니다.

두팔을 묶이운 사람도 있고 그냥 끌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덤주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소리가 차고넘쳤습니다.

순장무덤에 끌려가는 노예들

갑자기 숱한 병졸들이 달려들어 노예들을 장작불속에 밀어넣었습니다. 또 노예주무덤곁에 파놓은 여러개의 구뎅이에는 산 노예들을 잡아넣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에 타죽은 노예들도 가져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산 노예들을 노예주와 함께 파묻은 무덤이 생겨났습니다.

이 무덤을 강상이라는 지방에 있다고 하여 강상무덤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에 학자들이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3개의 무덤구뎅이에서 140여명의 사람뼈가 나왔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노예들이였습니다.

여러 무덤구뎅이중에서 가운데것은 큰 돌을 다듬어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노예주놈이 묻혀있었습니다.

무덤에서는 칼, 활촉, 질그릇, 장식품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예주들은 죽은 다음에도 살았을 때처럼 많은 노예들을 부려먹으며 호화롭게 지내보겠다는 허황한 생각에서 노예와 물건들을 자기 무덤곁에 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껴묻는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장무덤은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도 있습니다.

순장제도는 고조선뿐아니라 부여와 다른 나라들에도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강상무덤에서처럼 노예주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죽였지만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4과. 고조선의 애국명장 성기

옛날 고조선의 서쪽에는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였던 무제는 이웃나라인 고조선을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있었습니다.

드디여 지금으로부터 2천여년전 한나라 무제는 수많은 군대를 내몰아 고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놈들은 고조선의 부수도인 왕검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왕검성은 평양에서 서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오늘의 중국 랴오둥지방에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왕과 태자(왕자리를 이을 아들) 그리고 높은 관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가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왕검성을 지키던 고조선군대와 인민들의 드센 반격으로 한나라침략군은 무리로 녹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활한 적들은 담판을 하자고 위산이라는 놈을 대표로 보내왔지만 고조선군대의 위력에 질겁하여 담판은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말았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제놈들의 기도가 파탄되자 패배의 책임을 위산에게 넘겨씌우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몇배나 되는 력량을 왕검성공격에 내몰았습니다.

고조선군대와 인민들은 거의 1년동안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계속되고 적들이 더 많은 력량으로 달려들자 고조선통치배들속에서는 비겁한 배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음모를 꾸며 우거왕을 죽이고 적들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인민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성기장군의 지휘밑에 왕검성을 지켜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성기장군은 전투대오를 더 튼튼히 꾸리고 성벽과 방어시설들도 굳게 다졌습니다.

그의 능숙한 지휘에 따라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은 매번 파탄되고말았습니다.

…저 굴할줄 모르는 사람들의 기둥은 성기장군이다. 그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공할수 없다.…

적들은 이렇게 뇌까리며 흉악한 음모를 꾸미였습니다.

어느날 적장 순체는 투항변절한 고조선의 반역자들을 성안으로 들여보내여 성기장군에게 항복만 하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꾀였습니다.

이러한 역적들을 보는 순간 성기장군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한칼에 놈들을 베여버리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추상같이 호령하였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배반한 네놈들의 죄는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씻겠거든 적장 순체에게 당장 물러가라고 전하라.》

그의 말에 반역자들은 기겁을 하여 달아났지만 적들의 위협과 공갈을 받고 놈들은 또다시 음모를 꾸미였습니다.

피어린 싸움으로 하루해가 저물어간 어느날 밤 왕검성안은 천길나락에 빠진듯 조용했습니다.

성기장군은 새날의 작전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성안의 경비상태를 알아본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잠결에 이상한 인기척소리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순간도 경각성을 늦추지 않고있던 그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문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언뜻하며 달려드는 순간 성기장군은 번개같이 몸을 날렸습니다.

《악!》소리와 함께 악당이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성기장군이 그놈에게 침을 뱉으며 돌아서는데 또 몇놈이 달려들어 그의 가슴과 잔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성기장군은 치명상을 입고도 여러놈과 맞붙어 싸웠으나 끝내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유능한 지휘관을 잃은 후에도 왕검성방어자들은 한동안 용감히 싸웠으나 너무도 많은 침략자들이 달려들었으므로 성은 놈들에게 점령되였습니다.

한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전쟁에서 고조선인민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것은 통치배들의 동요와 투항변절때문입니다.

이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제5과. 공 후 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음악과 무용이 발전하였습니다.》

옛날 고조선의 어느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있었습니다.

남편은 곽리자고라는 배사공이였고 안해는 려옥이라고 하였습니다.

려옥은 마음씨가 착하고 아름다왔으며 공후라는 악기를 잘 타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곽리자고는 살뜰한 안해의 바래움을 받으며 강가의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먹장같은 구름이 여기저기 떠있는 하늘은 무엇이 못마땅한듯 찌뿌둥하여 떠오르는 아침해를 가리웠습니다.

곽리자고가 나루배의 바줄을 풀고 삿대를 배에 올려놓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강기슭으로 한 늙은이가 단지를 가슴에 부여안고 허둥지둥 달려오고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풀어헤친 그 늙은이는 무작정 강 한복판으로 들어서고있었습니다.

강물은 깊고 물살은 세찼습니다.

《저 늙은이가 어쩌자고?!》

곽리자고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그 늙은이의 안해가 남편을 부르며 뒤따라 달려오고있었습니다.

《여보!—》 애절한 부르짖음이 고요한 강변에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어떤 기막힌 사연인지?

안해의 피타는 통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남편은 사품치는 강복판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끝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세찬 물살에 휘말려들고말았습니다.

《아!—》 절망에 빠진 안해의 부르짖음이 울렸습니다.

뒤이어 슬픔과 원한을 터뜨리던 녀인은 불시에 남편의 뒤를 따라 역시 강물속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은 짧은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배사공 곽리자고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벌어진 이 사실이 자기 일처럼 가슴아팠습니다.

…오죽이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곡절이 많았으면 저렇게까지 되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곽리자고는 안해 려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공후를 타는 녀인

언제나 이웃들의 기쁨과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려옥은 늙은 부부의 불행도 자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려옥은 이 애달픈 심정을 자기의 사랑하는 공후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이 노래를 《공후인》이라고 합니다.

공후인은 그후 이웃의 려용이라는 녀인에게 전해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고조선사람들은 이처럼 기쁘거나 슬픈 자기들의 감정을 시와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공후인》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불행과 슬픔을 동정하는 고조선인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함께 당시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도 보여주고있습니다.

제6과.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동명왕전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명왕전설은 고구려건국력사를 담고있는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 300년전에 옛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왕을 동명왕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부여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하백(물의 신)의 딸 류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여난지 한달만에 벌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리가 달라붙어 잠을 못 자겠다고 어머니에게 활을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갈대로 활을 만들어주었더니 아이는 파리를 쏘는족족 맞혔습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부여의 금와왕에게는 일곱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몽과 함께 놀고 사냥을 했는데 주몽의 지혜와 용맹을 도저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일곱명의 왕자들이 주몽에게 또 사냥놀이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활을 잘 쏘니 화살을 한대만 주겠다. 그전에 보니 우리는 여럿이 사냥을 했는데도 너 혼자 잡은것만 못했다. 그러니 일없겠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몽은 그들의 심보가 고약했지만 큰 포부를 안고있는 사람이라 좋게 응했습니다.

그날 일곱왕자들은 심부름군도 40명이나 데리고 종일 산과 들을 뛰여다니며 사냥을 했지만 겨우 사슴 한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몽은 화살이 한대밖에 없으므로 짐승을 쏘면 반드시 요진통을 맞혀 그자리에 꺼꾸러뜨려야 했습니다. 만약 빗맞혀서 짐승이 달아나면 화살까지 떼우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말타기와 활쏘기로 이름난 주몽은 비록 화살이 한대밖에 없었지만 여러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자들은 질투심이 꼭두에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주몽을 큰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그가 잡은 사슴들을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몽은 분해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끄응…》

그는 솟구치는 울분을 자기를 묶은 나무에 대고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주몽의 마음은 괴로왔고 왕자들은 그들대로 한짓이 있는지라 주몽을 점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날 맏아들 대소가 금와왕에게 아뢰기를《주몽은 신비스러운 용맹이 있고 사람마다 우러러보니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좋지 않을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몽이 왕자리까지 탐낸다고 꾸며댔습니다.

그러나 금와왕은 주몽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주몽은 말먹이군으로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느때든지 꼭 부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날 주몽은 조용히 어머니를 만나 《나는 하늘나라 왕의 손자인데 말먹이군노릇을 하고있으니 죽은것만 못합니다. 남쪽지방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고 하나 어머님이 계시기에 결심을 못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류화는 《네 재주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인들 못하겠니. 여기서 욕을 당하지 말고 멀리 가서 큰일을 성공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몽을 데리고 말목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채찍을 들더니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들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놀란 말들이 달아나는데 그중 한마리는 두길이나 되는 나무울타리를 뛰여넘는것이였습니다. 그 말이 제일 날랜 말이라는것을 안 주몽은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놓았습니다. 얼마 안가서 그 말은 심히 여위였습니다.

어느날 금와왕이 말들을 돌아보다가 여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주몽은 말의 혀에서 바늘을 뽑아주었습니다. 얼마후 그 말은 가장 빠르고 튼튼한 준마가 되였습니다.

한편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마음이 통하는 세 사람을 사귀여 변치 않을 벗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여 주몽은 세 사람의 벗들과 함께 부여를 떠났습니다.

이때 주몽은 어머니가 주는 5곡종자가운데서 보리종자를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길을 가다가 큰 나무밑에서 휴식하는데 두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주몽이 말하기를《이것은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보리씨를 보내는것이로다.》하고 활을 쏘니 한 화살에 두마리의 비둘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둘기의 목구멍을 헤쳐보니 과연 보리씨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목에 물을 뿌려주니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습니다.

이어 주몽일행은 또다시 말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한 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부여의 군사들이 질풍같이 말을 달려 쫓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된 순간 주몽이 말채찍을 높이 휘두르며 웨쳤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왕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이다. 나를 위하여어서 다리를 놓으라.》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눈깜박할 사이에 숱한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우에 떠올라 다리가 되였습니다.

주몽과 그의 벗들은 번개같이 말을 달려 강을 건넜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던 부여군사들이 다리에 들어서려 할 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갑자기 흩어져버렸습니다. 부여군사들은 더는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그후의 이야기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실지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고구려건국

주몽은 그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더 사귀여 부하로 삼았습니다.

주몽의 일행은 드디여 졸본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졸본은 압록강중류지역에 있던 고대국가 구려라는 나라의 땅이였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귀족의 딸인 소서노가 있었습니다.

소서노는 주몽이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임을 믿고 자기 집 재산을 모두 주몽을 위해 바쳤습니다.

소서노의 뒤받침을 받으면서 주몽은 많은 사람들을 뽑아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술을 부지런히 닦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북쪽으로부터 한 종족이 자주 침입하여 재물을 략탈하군 하였습니다.

주몽은 그들에 대한 세찬 반공격을 들이대여 움쩍 못하게 눌러놓았습니다. 그후부터 주몽의 이름은 구려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지방의 귀족들은 회의를 열고 주몽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선출하였습니다.

한개 지방의 위력한 우두머리가 된 주몽은 가끔 구려왕을 만나 나라일을 의논하게 되였습니다.

구려왕이 주몽을 보니 름름하고 지략과 용맹이 뛰여나 앞으로 나라일을 맡길만 했습니다.

그는 둘째딸을 주몽에게 시집보내여 사위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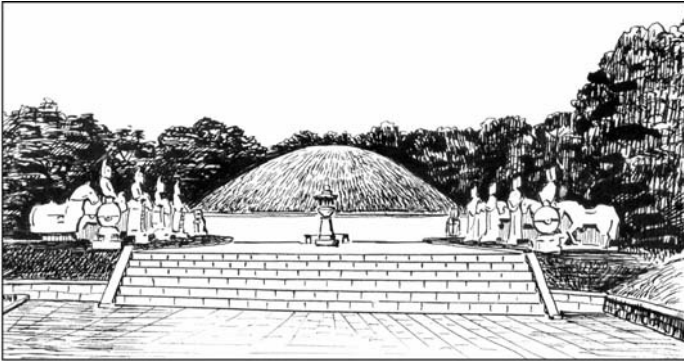
얼마후 구려왕이 죽게 되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주몽이 왕자리를 잇게 되였습니다. 이때 주몽은 22살이였습니다.

이렇게 젊어서 왕이 된 주몽은 나라이름을 본래의 《구려》에 《고》자를 더 붙여 《고구려》라고 하였으며 자기의 성을 《고》씨로 삼았습니다. 그후 왕의 시호(죽은 후에 붙여주는 칭호)는 《동명왕》으로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왕《동명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구려의 창건자 동명왕의 업적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의

묘를 다시 크게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시 력포구역에 동명왕릉이 웅장하게 건립되였습니다.

동명왕릉

제7과.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

백 제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운 다음 그 서남쪽에서는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백제가 세워진 중심지는 오늘의 서울 북한산부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 200여년전 바로 여기에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옮겨왔습니다.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점점 힘이 커져서 작은 나라까지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온조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명왕에게는 고구려를 세운 후에 낳은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해 봄날 부여에서 태여난 다른 아들 유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동명왕이 부여를 떠나올 때 아직 태여나지 않았던 아들이였습니다.

그때 앞날을 기약할수 없었던 동명왕의 마음은 괴롭고 서글펐습니다.

그는 칼 한쪼각을 소나무기둥밑에 숨겨놓고 안해에게 말하기를 《내가

표식으로 남겨둔 물건이 있으니 만일 아들을 낳거든 큰 다음에 소나무기둥아래에서 물건을 찾아내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찾아온것이였습니다.

유류는 소나무기둥밑에서 찾아낸 칼 한쪼각을 동명왕에게 바쳤습니다. 동명왕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있던 칼 한쪼각과 맞추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칼쪼각들이 맞추어지면서 하나의 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드디여 동명왕은 크게 기뻐하며 유류가 자기의 왕자리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명왕의 다른 아들 비류는 동생 온조에게《이제 나라는 유류에게 속하게 되였다. 우리가 하는 일없이 여기에 있다가 쓸모없는 혹처럼 될수 있으니 남쪽지방으로 가서 알맞는 땅을 찾아 나라를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가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나섰습니다.

두 형제는 한산이라는 곳(오늘의 서울부근)에 이르러 어느 한 산봉우리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넓은 벌이 펼쳐져있었습니다. 아득한 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기에 아주 맞춤한 곳이였습니다.

그러나 형 비류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을 갈라서 데리고 서쪽의 미추홀이라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오늘의 인천지방이였습니다.

그러나 온조는 한산아래에 수도(위례성)를 정하고 작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이름은 《백제》라고 하였습니다.

온조는 10명의 신하들을 뽑아 나라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류가 떠나가서 자리를 잡았던 미추홀은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할수없이 비류는 동생 온조가 통치하는 위례성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온조가 작은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류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살수 없는 미추홀로 갔던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비류가 죽자 미추홀에 살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온조이야기는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처음에 온조를 비롯한 고구려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이곳 사람들은 그들한테서 많은것을 따라배웠습니다.

온조를 비롯한 고구려사람들은 이곳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서쪽지역을 다 백제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온조가 세운 작은 나라 백제는 그후 2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커져서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되였습니다.

이처럼 백제는 고구려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한겨레의 나라였습니다.

신 라

백제가 선 다음 그 동남쪽에서는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신라가 세워진 중심지는 오늘의 경상북도 경주였습니다.

이 지방에도 역시 백제처럼 북쪽의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발전된 나라들에서 살았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그후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과 힘을 합쳐 《사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로국이 세워진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옵니다.

…옛날 경주지방에는 여섯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우두머리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느해 이른 봄날이였습니다.

여섯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한 언덕에 모여 왕을 뽑고 나라를 세우자는 의논들을 하였습니다.

이때 문뜩 양산기슭의 우물결에 이상한 빛이 번개처럼 번쩍이더니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보니 어느덧 말은 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

가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땅우에는 보라빛나는 크고 둥그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알을 가져다두었더니 단정하고 곱게 생긴 사내애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동쪽의 맑은 샘물에서 씻어주니 몸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었습니다.

또한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고 하늘땅이 울리며 해와 달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성을 박이라고 하고 이름은 혁거세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날 알영우물가에서는 룡이 나타나 곱게 생긴 처녀애를 낳았습니다. 그의 입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으므로 내가에서 씻어주었더니 부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물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알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덧 박혁거세와 알영이 열세살이 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왕과 왕후로 삼고 나라이름을 사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꾸며진 전설에서 박혁거세와 여섯 마을 우두머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사람들이 옮겨온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사로국은 그후 백수십년동안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여 지금으로부터 거의 2 000년전에 완전한 봉건국가로 되였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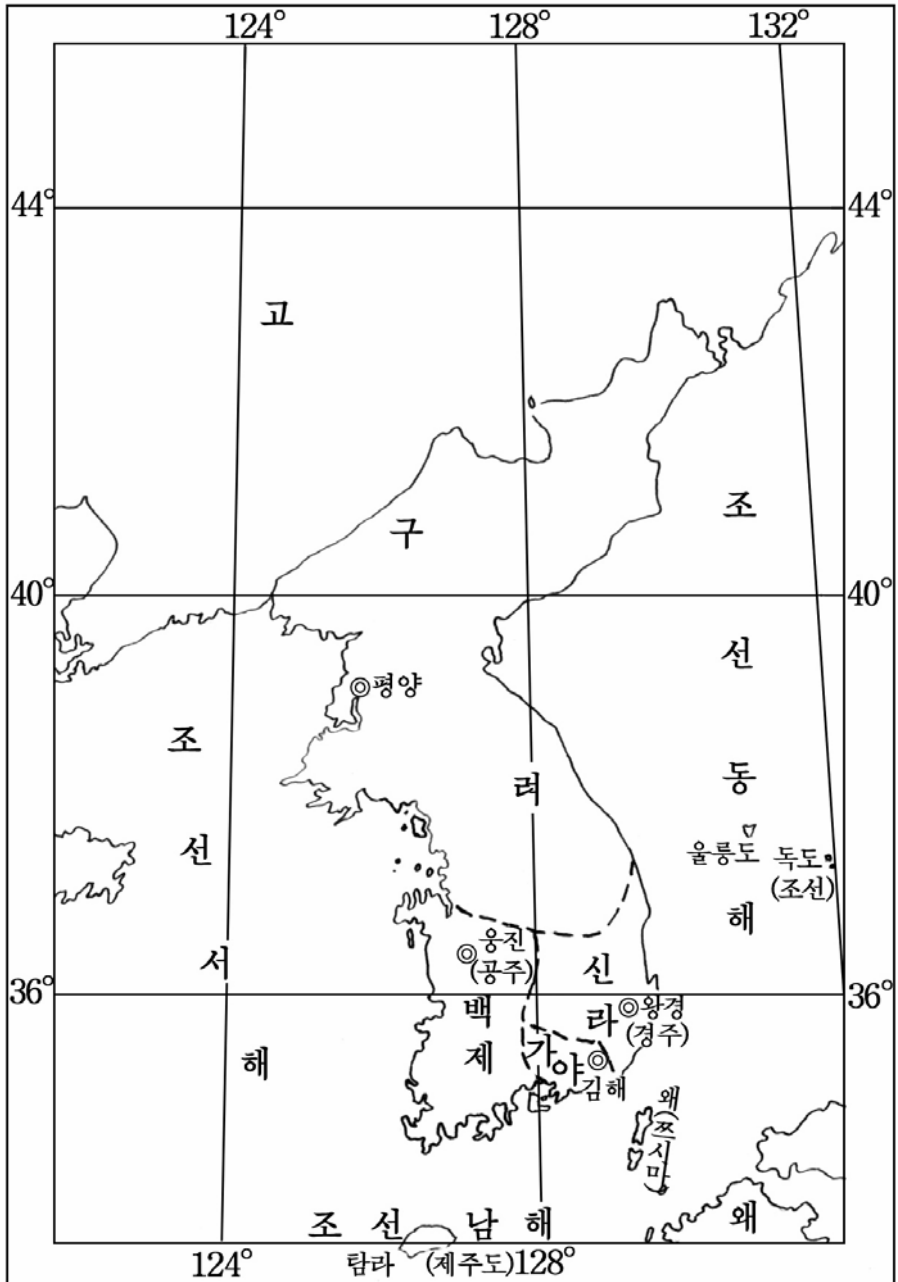
이처럼 신라도 북쪽의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여 그뒤에 세워진 백제, 신라는 다 우리 선조들이 세운 한겨레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과는 다른 보다 발전된 봉건사회, 봉건국가들이였습니다.

봉건사회에서는 노예주대신 지주가 있고 노예대신 농노(노비)가 있었습니다.

124° 128° 132°
44° 44°
40° 40°
36° 36°
124° 128°

고 구 려
조 선 동 해
조 선 서 해
조 선 남 해
◎평양
울릉도
독도 (조선)
◎웅진 (공주)
백 제
신 라
◎왕경 (경주)
가 야
◎김해
왜 (쯔시마)
왜
탐라 (제주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도

第8課. 고구려의 애국용사 을두지와 뉴유

을두지의 전술

지금으로부터 거의 2 000년전 고구려의 한 성이 한나라침략군의 포위속에 든지 여러날이 되였습니다.

성안에 있는 군대와 인민들은 무서운 곤난을 겪고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때문만이 아니였습니다.

7월의 해빛은 모든것을 불태워버릴듯 뜨겁게 내리쪼였습니다.

몇십년만에 들이닥친 왕가물이였습니다. 풀과 곡식은 물론 우물과 샘들조차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수백수천의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이 갈증으로 허덕이며 적들의 공격을 가까스로 물리치군 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물을 먹지 못하여 모두가 그대로 죽을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난관을 놓고 생각이 깊었지만 을두지의 마음은 더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한나라침략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 성안으로 들어가 싸우자고 주장한 사람이 그였기때문입니다.

국왕도 을두지의 마음을 짐작한듯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을두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안에는 물이 말랐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적들에게 물이 많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 경(왕이 신하를 부르는 말)은 무슨 수로 성안에 물이 넉넉하다는것을 보여주겠는가?》

왕이 호기심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못의 잉어를 잡아 술과 함께 적장에게 편지를 보내면 될줄로 아옵니다.》

모두가 그럴듯 한 생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국왕은 곧 한 장수의 이름으로 적장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나라 땅에 들어와 한지에서 잠자며 때식을 하고있으니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 수고를 생각하여 약간한 물건을 보내니 기꺼이 받아주기 바란다.》

고구려사신은 곧 잉어가 들어있는 함과 편지를 적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나저제나 고구려에서 항복한다는 소식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적장은 편지라는 말에 한동안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물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놈이라 인차 그의 안색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하를 시켜 함뚜껑부터 열게 했습니다.

군침을 삼키며 함속을 들여다본 적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속에서 커다란 잉어가 한가하게 꼬리치고있었습니다.

적장에게는 신기하고도 맹랑한 일이였습니다.

이처럼 큰 잉어가 자라는 련못과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물마르기만 기다리며 성을 포위하고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함통을 본 다음에야 적장은 고구려장수의 편지내용이 우둔한 자기를 조롱하는것임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성을 오래동안 포위하여 성안에서 물을 먹지 못해 항복하게 하는 《기갈전술》이 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장은 물건이라도 받았으니 체면은 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곧 저의 군사들에게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성안의 군대와 인민들은 성문을 열고나가 도망치는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겼습니다.

이처럼 을두지의 전술에 의하여 나라앞에 나섰던 위험은 가셔지게 되였습니다.

애국용사 뉴유

외래침략자를 물리치는 싸움에 한몸바친 용감한 고구려사람들속에는 뉴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 700여년전에 고구려 서쪽에 있던 위나라의 관구검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관구검은 유주자사라는 지방장관이였습니다.

고구려 동천왕은 처음에 고구려군대가 련전련승하는것을 보고 점차 적을 얕잡아보면서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적들의 꾀임수에 걸려 수많은 군사를 잃고 퇴각하게

되였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군대의 주력부대들은 대부분이 먼 전선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의 전투들에서 왕도 잡힐번하고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어려있었습니다.

이때 고구려동부의 귀족출신인 뉴유가 왕앞에 나섰습니다.

《상감마마, 제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하나의 계책이 있사오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라나이다.》

왕은 뉴유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뉴유는 좋은 술과 여러가지 진귀한 음식들을 준비한 다음 시중군으로 가장한 몇몇 날랜 용사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적장과 인사를 나눈 후 말하였습니다.

《우리 대왕께서는 당신과 싸움을 그만두고 강화를 맺으려 하오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수고를 헤아려 술과 음식을 대접하도록 소신을 보냈으니 기꺼이 받아주소이다.》

적장은 대단히 흡족했습니다. 강화담판을 해도 저들이 이기리라 생각했습니다.

곧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독한 술을 가득 부은 술잔이 연거퍼 적장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동안이 지나자 적장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가며 비칠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없이 계속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떤 놈은 아무데나 자빠져서 코를 골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뉴유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하고 번개같이 비수를 뽑아들고 적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용사들도 적지휘관놈들을 모조리 찔러눕혔습니다. 술에 흠뻑 취했던 놈들은 별로 반항도 못하고 푹푹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적 지휘부가 녹아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적들이 몰켜있는 적 진영안에서 싸우던 뉴유와 그의 동료들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적들은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이때 고구려군대의 드세찬 공격이 시작되였습니다.

적들은 도망치다가 무리로 쓰러지고 승리한 고구려군대는 환도성을 되찾게 되였습니다.

위나라 관구검의 침략을 물리친 이 전쟁에서 고구려의 애국용사 뉴유의 공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제9과. 《바보온달》이 장군으로

고구려에는《바보온달》이라고 불리우던 한 총각이 사냥경기에서 우승을 하여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으며 외적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밖에는 온달이라는 총각이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은 너무도 가난하여 항상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다 해진 옷에 꿰진 신을 끌고 동냥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바보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바보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을만큼 착한 마음씨와 굳센 의지를 가진 총각이였습니다.

모진 고생속에서 불쌍한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고 부지런히 일하였으며 아름다운 평양을 끝없이 사랑하였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평강왕에게는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하였습니다.

어린 공주가 울며 보채면 왕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너를 이 다음〈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군 하였습니다.

어느덧 공주는 자라서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꽃처럼 아름답게 피여났습니다.

꿈많은 공주의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외우던《바보온달》이 과연 어떤 총각일가 하는 생각이 들군 하였습니다.

그가 열여섯살 되던 해 어느날 왕은 높은 귀족인 고씨의 아들에게 그를 시집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공주는 정색하여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늘 저를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하시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어기시나이까, 보통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늘 하물며 대왕께서 빈말을 하시니 소녀는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허허. 내가 롱삼아 한 말을 진짜로 들었구나, 어찌 한 나라의 공주가 가난뱅이총각의 배필로 된단 말이냐, 군말말고 내 말을 들어라.》

《아닙니다. 소녀는 어렸을 때 부왕의 말씀을 어명으로 가슴에 새겼나이다.》

아무리 달래여도 공주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왕은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말을 거역하였으니 내 딸이 아니다. 어서 네 갈데로 가거라.》

이렇게 되여 공주는 왕궁을 나가게 되였습니다. 공주의 유모는 황금팔찌와 값진 보물들을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대궐문을 처음으로 혼자 나선 공주는 얼떨떨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해질녘에야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산비탈 외진 곳에 찌그러져가는 초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문앞에서 조용히 주인을 찾자 눈먼 늙은이가 토방으로 더듬더듬 나왔습니다.

공주는 얼른 달려가 그를 부축한 후 찾아온 사연을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햇솜같이 부드러운 공주의 손과 취할듯 한 향기는 로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찾아오다니…

《내 아들은 가난하고 루추하여 귀족의 처녀와 배필이 안된다네. 처녀의 꽃다운 향기가 보통이 아니며 손이 솜같이 부드러우니 귀인이 분명하구만. 그 누구의 꾀임수로 여기까지 찾아온게 아닌가.》

그러자 공주가 다시금 진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공주는 느릅나무껍질을 벗기러 갔다는 온달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만에 공주는 산비탈에서 집채같은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는 사

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앞에서 온달은 흠칫 놀라면서 멈춰섰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온달에게로 몇걸음 다가서며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온달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여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산속에 나타난것을 보니 그대는 귀신이나 여우가 분명하다. 나에게 다가서지 말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주는 온달이 자기의 진정을 몰라주었으나 그에게서 사내다운 모습과 슬기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주는 삽짝문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들을 바라보니 흘러간 궁중생활이 눈앞에 떠올라 한숨이 나가고 두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굳게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주는 다시금 어머니와 온달에게 자기의 진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말에 한말의 곡식, 한자의 천도 같이 나누어 먹고 나누어 입을수 있다고 하였나이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함께 살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어찌 재산과 가문만 따지겠나이까.》

이리하여 온달은 공주를 안해로 맞게 되였습니다.

공주는 가지고온 팔찌와 보물들을 팔아서 살림살이를 시작하고 말도 사오고 무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온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활쏘기, 말타기를 하였습니다.

드디여 고구려사람들이 기다려온 3월 3일 사냥경기의 날이 왔습니다.

수도 평양의 락랑언덕에 온 나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흥성거렸습니다.

왕과 관리들까지 나왔습니다.

온달도 사랑하는 준마를 타고 경기에 참가하여 맨 앞장에서 달렸습니다.

이날 제일 많은 짐승을 잡아서 1등을 한것은 뜻밖에도 온달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에서는 본래의 풍습대로 온달에게 많은 상을 주고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후 고구려의 서쪽에 있던 후주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싸움의 앞장에서 온달장군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대형이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후 한겨레의 나라들인 백제, 신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던 온달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그만 전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우던 그가 전사한것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를 장사지내던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여 시체가 든 관을 들려고 했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주가 달려와 관을 쓸어만지면서 흐르는 눈물을 관우에 떨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이미 결판났나 보오이다. 아, 고이 돌아가시라.》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온달이야기를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마음에서 꾸며붙인 이야기입니다.

제10과. 명림답부의 지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였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성으로 말탄 군사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쪽에 있던 한나라의 군대가 수만명이나 쳐들어온다는 급한 소식을 가지고왔습니다.

고구려왕궁에서는 곧 왕과 많은 관리들이 모여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작전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몇몇 관리들은 곧 침략자들을 맞받아나가 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적들이 수가 많은것을 믿고 고구려를 허술히 보기때문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놈들이 고구려사람들을 비겁하게 여기고 앞으로 더 자주 쳐들어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적을 맞받아치자는 이러한 의견은 용맹한 고구려사람들의 배짱에 맞는것이였습니다.

적지 않은 관리들이 그 주장이 옳다고들 하였습니다.

아무말 없는것을 보니 왕도 그 주장을 반대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이때 맨 앞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국상 명림답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지금 내놓은 전술대로 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명림답부는 어려서부터 군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지난 시기의 전쟁들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무술도 뛰여났습니다. 그래서 6년전에 국상이 되였는데 국상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관리였습니다.

명림답부는 나라일에 큰 책임을 지고있는 국상으로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순간에 사람들을 깨우쳐 옳은 전술을 세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며 기회를 놓쳐 잘못된 전술이 세워지게 하면 큰일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긴다 해도 우리 군대 역시 많은 손실을 당할것입니다.

적들은 우리 나라 깊이까지 쳐들어왔지만 식량을 천리밖에서 날라다 먹고있으니 오래 머물러있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군대와 백성들이 우물을 다 메우면 적들은 물을 마실수 없습니다. 또 식량과 집짐승을 모조리 성안으로 끌어들이면 적들은 천리밖에서 보내오는것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을 튼튼히 지키다가 적들이 굶주려서 맥이 쭉 빠졌을 때 기병부대로 들이치면 놈들을 몽땅 잡을수 있을것입니다.》

명림답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지략있고 언제나 실수를 모르는 국상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명림답부가 다시금 적의 약점을 밝히면서 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맞받아 싸우자고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쳐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명림답부가 내놓은 전술대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의 우물들을 모조리 메우고 곡식과 집짐승을 모두 성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들판과 마을에는 쌀 한줌, 닭 한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든 고구려땅으로 한나라침략자들이 헤덤비며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침략자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허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온다는 식량은 말뿐이고 략탈을 하자고 해도 마을은 텅비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병졸들은 맥이 빠져 움직이기도 싫었습니다. 적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이때에야 적의 우두머리는 고구려의 묘한 전술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닫고 가슴이 섬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적들이 좌원벌이라는 넓은 벌판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고구려군대의 공격을 알리는 요란한 북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순간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명림답부가 인솔한 수천명의 고구려기병부대가 산악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적들은 무리로 녹아났습니다. 넓은 벌판에 침략자들의 시체가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적들은 한놈도 살아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가 지금으로부터 1 800여년전에 있은 좌원벌싸움이였습니다.

좌원벌싸움의 승리는 묘한 전술을 내놓은 고구려의 장수 명림답부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제11과. 광개토왕릉비가 전하는 이야기

자강도 만포시의 압록강건너편 중국 지안에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서있습니다.

비석에는 1 800자가량의 한자글이 44줄로 새겨져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서 비석은 금이 갔습니다. 또 겉면이 떨어져서 글자를 알수 없는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아볼수 있는 글자들만 읽어보고도 이 비석이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전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가 제일 강했던 때는 고구려때였습니다.》

비석의 글은 바로 강대한 나라로 세상에 이름떨치던 고구려의 력사를 전하고있습니다.

이 비석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맏아들인 장수왕이 세운것입니다. 이것을 광개토왕릉비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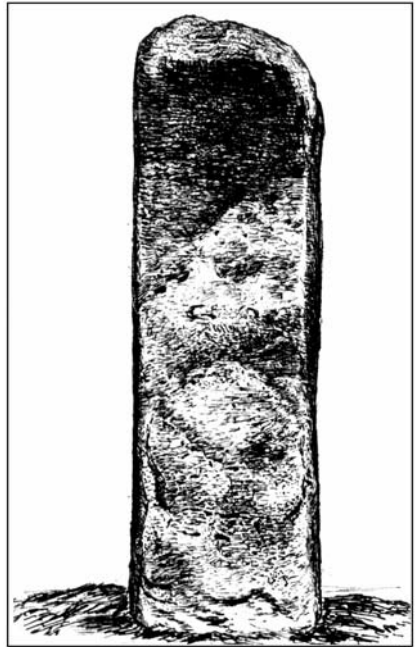
비석은 지금까지 천수백년동안 오랜 세월을 여기에 서있습니다.

이 비석이 서기 전부터 고구려는 벌써 강대해졌습니다.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 후 고구려는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통합해나갔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여러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옛날 고조선땅을 점차 되찾아나갔습니다.

광개토왕릉비

그러면서 고구려는 처음부터 한겨레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여 통일된 하나의 대강국을 일떠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의 통치배들은 한겨레의 나라들을 통일하기보다

서로 자기 땅을 넓혀 저들의 통치지역만 늘쿠어보려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통일위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였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왕과 장수왕시기에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적극 벌려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광개토왕릉비는 바로 이러한 사실의 일부를 전하고있습니다.

광개토왕은 18살 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였습니다.

다음해에 그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북쪽땅을 거의다 차지하였습니다.

그후 몇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광개토왕은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륙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58개 성을 련달아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고구려군은 기세높이 백제의 수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제군은 수도성에서 강하게 맞서나섰습니다.

성이 난 광개토왕은 수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강력한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더는 버티여낼수 없게 된 백제왕은 드디여 광개토왕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고구려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노객》이란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녀노비 1 000명과 베 1 000필을 바치고 자기 동생과 신하 10명을 고구려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광개토왕은 그후 또다시 고구려의 통일위업에 맞서나서는 백제를 공격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밀고나갔습니다.

광개토왕은 남쪽 겨레의 나라들에 침입한 바다건너《왜》(일본에 있던 작은 나라들)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고구려의 위력을 떨치였습니다.

광개토왕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령토를 넓혔다는 뜻에서 붙인것입니다.

고구려가 세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면서 강대한 나라로 이름떨쳤다는것은 옛날 책들에도 많이 씌여있습니다.

광개토왕릉비에 새긴 글은 광개토왕의 이러한 공적의 일부 내용만을 담았을뿐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때에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서쪽과 북쪽으로 진격하여 옛날 고조선과 부여의

땅을 거의다 차지함으로써 령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때 오늘의 중국땅에는 연(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장수왕은 고구려의 군대를 그 나라 수도에 보내여 왕과 관리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구려로 옮겨오게 하였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이 시기에도 세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475년 3만명의 고구려군대는 장수왕의 지휘밑에 백제의 수도를 점령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세나라의 통일위업에 맞서는 신라에도 공격을 들이대여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남북으로 굉장히 넓은 령토를 가진 크고 강대한 나라로 되였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오늘 우리 나라 남쪽의 좁은 지역만 차지하고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땅은 백제와 신라를 합친것보다 10배나 컸습니다.

서쪽과 북쪽, 남쪽으로 고구려땅을 부단히 넓히면서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키던 장수왕은 98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79년동안이나 왕을 하였습니다.

장수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서쪽의 위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위나라왕은 상복을 갈아입고 애도식을 크게 하였으며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여 슬픔을 표시하였습니다.

제12과. 을지문덕장군과 살수싸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고구려인민들은 70년동안이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

고구려가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던 약 1 400년전의 일이였습니다.

그때 중국땅에는 《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왕은 날로 강해지는 고구려를 두려워하면서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였습니다.

수나라왕은 드디여 598년에 수많은 군대를 끌고 바다와 륙지로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용맹한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은 한덩어리가 되여 침략자를 내쫓았습니다.

첫 침략에서 많은 군대와 군수물자를 잃은 수나라왕은 기어이 고구려를 먹어보려고 또다시 전쟁준비를 다그쳤습니다.

수나라왕은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병사들의 무기를 검열하다가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여죽였습니다.

전쟁준비를 끝낸 수나라왕은 612년에 두번째로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수나라군대는 300만이나 되였는데 그 행군대렬의 길이가 1 000리도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많은 침략군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간적은 없었습니다.

수나라침략군은 먼저 고구려요새의 하나인 랴오둥성으로 공격하여왔습니다.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수십배나 되는 적들을 여기에다 붙들어놓고 100일동안이나 족쳤습니다.

랴오둥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수나라왕은 30만 5 000명의 군대를 따로 뽑아 별동대를 무어 고구려땅에 침입시켰습니다.

수나라왕은 모든 병졸들이 100일동안 먹으면서 싸울 식량과 무기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수나라병졸들은 이 엄청난 짐을 지고 행군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휘관들 몰래 식량을 파묻어버리였습니다.

이러한 적들이 태자하(오늘의 타이쯔하)라는 강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식량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였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의 총지휘관인 을지문덕장군은 침략자들을 모조리 족칠 묘한 전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을지문덕장군은 먼저 적들의 형편과 약점을 알아내기 위하여 《담

판》을 하자고 하면서 대담하게 적진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담판장에 나선 을지문덕은 적장에게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놈들이 모두 굶주리고 지쳐서 사기가 떨어지고 지휘관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을지문덕은 《담판》을 끌내고 곧 돌아섰습니다.
을지문덕장군의 당당한 기세에 눌리워 어리벙벙했던 적장들은 그때에야 을지문덕을 잡으려고 다시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속심을 알아차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곤난한 형편을 손금보듯 꿰뚫어본 을지문덕장군은 곧 적들이 지나갈수 있는 마을과 길목들에서 식량과 집짐승을 모조리 성안으로 끌어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대는 매일 몇번씩 적들과 싸워 지는척 하면서 봉황성까지 적들을 끌고오게 했습니다. 그바람에 적들은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을지문덕장군은 적장에게 시 한수를 써서 화살에 날려보냈습니다.
《핑…》화살이 날았습니다. 적장이 들어있던 집 기둥에 꽂힌 화살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깜짝 놀란 파수병놈이 기둥에서 화살을 뽑아 시를 우두머리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 시는 적들을 추어주는척 하면서 사실은 골려주는 내용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적들은 철통같은 봉황성의 방위에 겁을 먹고 또 을지문덕의 시에서 고구려사람들의 자신만만한 기세를 느끼자 그만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을지문덕장군은 침략군들이 살수(오늘의 중국땅에 있는 강)라는 강을 건늘 때 미리 숨겨두었던 군대와 적들을 뒤따르던 군대로 드센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사방에서 하늘땅을 뒤흔드는 고구려군의 함성과 북소리가 울리고 창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적들은 정신없이 물에 빠지고 화살과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살수싸움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으나 적들의 시체는 강과 온 들판에 널리다 못해 주검우에 주검이 덧쌓였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수나라별동대 30만 5 000명은 거의다 죽고 겨우 2 700명이 저희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세계전쟁력사에서도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룩한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나라왕은 할수없이 나머지 졸병들을 끌고 쫓겨가고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구려인민들의 이 승리를 《살수에서의 큰 승리》라고 높이 자랑합니다.

이렇듯 고구려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외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켜냈으며 민족의 영예를 떨쳤습니다.

제13과. 연개소문장군의 단호한 결심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장군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애국명장들이 많았습니다.

연개소문도 그중의 한사람입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이름난 애국명장이였고 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용감하였으며 무술이 뛰여났습니다. 또한 성품이 대바르고 몸집이 커서 위풍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서쪽에서는 수나라가 망하고 새로 당나라가 섰는데 이 나라 통치배들도 고구려를 침략할 준비를 갖추고있었습니다.

당나라왕은 거만하게도 고구려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고구려의 나라일에 간참하기도 하고 간첩들을 들여보내여 군사비밀을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구려 영류왕과 몇몇 높은 관료들은 당나라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대신 양보만 하면서 비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당나라에 대한 이러한 나약한 태도와 행동을 강경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비겁한 관료들은 연개소문을 미워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는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지어는 영류왕을 끼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였습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단호한 행동으로 사태를 바로잡을것을 결심하였습니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평양성 남쪽 언덕에서 서부군대들의 열병식을 벌렸습니다.

서부군대는 연개소문이 서부대인의 벼슬을 하면서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이날 열병식은 성대하게 준비되였습니다.

번뜩이는 창과 칼, 활을 메고 말을 탄 수많은 군사들이 질서있게 대렬을 짓고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명령도

수행할 결심이 어려있었습니다.

높직한 언덕우에는 푸짐한 주연상들을 차려놓았는데 그것은 귀족관료들을 위해 준비한것이였습니다.

이윽고 밤색준마를 탄 우람찬 장수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오는데 갑옷은 해빛에 번쩍이고 허리에 찬 긴 칼은 위엄을 더욱 돋구었습니다. 장수의 숱진 눈섭과 불길이 이는듯 한 눈빛은 큰일을 벌리려는 단호한 결심이 력력히 어렸습니다. 그가 바로 연개소문이였습니다.

이윽고 연개소문이 대렬앞에 와서 멎자 열병식을 알리는 류량한 나팔소리가 넓은 들판으로 울려갔습니다.

순간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열병대오들이 적진으로 육박해가듯 하늘땅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런 먼지가 뽀얗게 피여오르는데 열병대오는 남쪽 산 후미진 곳으로 멀어져갔습니다.

한동안 장쾌한 행진이 벌어지고 보는 사람들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병대오가 멀어지자 귀족관료들은 더 기다릴수 없다는듯 술병을 기울이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닥쳐오는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흥과 안일에 빠져있는 비겁한 귀족관료들이였습니다.

마지막 열병대오도 사열대앞을 지나 이제는 열병식이 끝나는듯 한 때였습니다.

저쪽 열병대렬들이 멈춰선 곳에서 갑자기《와!》하는 함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군사들이 창, 칼을 비껴들고 이쪽 귀족관료들을 향해 말을 몰아 돌격해들어왔습니다.

둔덕우에서 말을 타고 열병대오를 지켜보고있던 연개소문이 긴 칼을 뽑아들고 웨쳤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저놈들을 쳐라!》

달려오던 군사들은 곧바로 귀족관료들에게 말을 몰아 그들의 머리우에 사정없이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100여명의 귀족관료들이 처단되였습니다.

이어 연개소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가 영류왕을 죽

이고 그의 조카를 왕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하여 연개소문은 나라의 권력을 틀어쥔 막리지라는 제일 높은 관리가 되였습니다.

막리지가 된 연개소문은 그후 당나라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여러가지 방어대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해오던 천리나 되는 긴 성을 튼튼히 쌓게 하였습니다. 무기를 마련하고 식량을 모아들이는 일들도 적극 밀고나갔습니다.

또한 당나라에서 보낸 사신이 나라일에 끼여들며 거만하게 행동하자 그를 굴속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동방의 강대국인 고구려는 적들에게 호락호락 쉽게 굽어들 그런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왕은 어리석게도 645년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장군의 총지휘밑에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첫 침략에서 녹아난 적들은 그후에도 두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매번 무리죽음을 당하고 쫓겨가고말았습니다.

그때 당나라왕은 살아남은 졸병들을 끌고 도망치면서 연개소문장군에게 좋은 갑옷과 값진 비단천을《선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살아서 도망칠 길만은 열어주었으면 해서였습니다.

당나라왕은 연개소문이 지휘하는 고구려군대와 인민에게 얼마나 혼이 났던지 죽을 때에 다시는 고구려를 다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후 당나라에서는《연개소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들까지도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은 이처럼 당나라침략자들을 벌벌 떨게 한 고구려의 애국명장이였습니다.

제14과. 당나라왕을 애꾸로 만든 안시성싸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슬기롭고 용맹하였을뿐아니라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압록강기슭의 국경도시 신의주시에서 서북쪽으로 500여리 떨어진 곳에는 옛날 고구려의 안시성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안시성은 고구려에서 서쪽의 당나라로 오고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당나라침략자들은 안시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고구려에 깊이 쳐들어올수 없었습니다.

645년 6월 안시성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해 4월 당나라의 태종(왕)은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무리죽음을 당하다가 드디여 안시성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십만의 당나라침략군은 성을 두겹세겹으로 포위하였습니다.

성밖에는 당태종이 들어있는 침략군의 지휘부건물이 있는데 누런 황제기발이 꽂혀있었습니다.

안시성에는 성주 양만춘장군이 지휘하는 10만명의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이 싸움준비를 갖추고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침략자들과 맞다든 안시성방어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증오로 불탔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북과 꽹과리를 울리면서 당태종을 놀려댔습니다.

이에 성이 독같이 난 당태종은 악을 쓰며 졸병들을 공격에로 내몰았습니다.

성을 포위했던 수십만 침략군이 새까맣게 성벽으로 달려들어 기여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충차라는 무기로 성벽을 들이받고 포차라는 무기로는 큰 돌을 연방 날려보냈습니다.

안시성싸움

성벽우에서 쏘는 고구려군사들의 화살이 침략자들의 머리우에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기여오르던 적들은 고구려군사들의 돌에 맞고 칼에 맞아 성벽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때 충차로 들이받은 한쪽 성벽이 무너지자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재빨리 통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세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치렬한 싸움으로 하루해가 저물어 안시성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성안의 남녀로소 전체 인민들은 군대와 함께 무너진 성벽들을 더 든든히 쌓고 래일의 싸움준비를 하는 한편 돼지를 잡고 떡을 쳐서 군사들의 힘과 사기를 돋구어주었습니다.

성안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음식냄새가 굶주린 당나라군사들의 배를 못 견디게 했습니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적들이 지쳐서 천막안에 곤드라진 한밤중이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일고 벼락치듯 하는 함성이 울리며 고구려군사들이 습격해왔습니다.

잠에 취한 적들은 손에 무기도 잡을사이없이 화살에 맞고 칼에 찔렸으며 말에 밟혀 죽었습니다.

양만춘장군이 조직한 고구려군사들의 이러한 야간습격전은 한두번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의 군대로 공격하면 안시성쯤은 쉽게 점령할줄 알았던 당태종은 날이 갈수록 조급해났습니다.

자기의 위신이 안시성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살아서 돌아갈것 같지도 못했습니다.

당태종은 드디여 성을 점령할 새로운 생각을 해냈습니다.

당나라왕은 모든 병졸들을 동원하여 성벽결에 높은 흙산을 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허기진 병졸들이 밤낮으로 흙을 져날랐습니다. 적들은 60일동안에 50만공수의 로력을 들여 마침내 성벽보다 높은 흙산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됐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당태종은 흙산우에서 성안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져지지 않은 흙산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성벽이 파괴되였습니다.

바로 이때 침략자들의 얕은 꾀를 미리 알고있던 고구려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나가 침략자들을 족치고 흙산을 점령하였습니다.

흙산을 빼앗긴 당태종은 악을 쓰며 3일동안이나 졸병들을 총공격에로 내몰았습니다.

칼을 빼들고 앞장에서 날뛰는 당태종을 향해 고구려군사가 활을 겨누었습니다.

잠간 숨을 죽이고 활줄에서 손을 떼자 당태종이 말우에서 땅으로 곤두박혔습니다.

깜짝 놀란 졸병들이 달려들어 당태종을 끌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벌써 한쪽 눈을 잃은 애꾸가 되였습니다.

이날까지 88일동안 어떠한 공격으로도 성을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당태종은 드디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태종은 연개소문에게 한것처럼 양만춘장군에게도 비단 100필을《선물》로 보냈습니다.

제발 도망갈 길만은 열어달라는 뜻이였습니다.

이처럼 용감한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몇배나 되는 침략자들과 88일동안 싸워 끝내 안시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제15과. 혜초의 세계려행

우리 선조들속에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도 없던 먼 옛날에 순전히 걸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대려행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1 300여년전에 있은 고구려사신들의 우즈베끼스딴려행입니다.

고구려에서 우즈베끼스딴까지는 수만리나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고구려사람들이 갔습니다.

지금 우즈베끼스딴의 어느 한 도시궁전벽에는 그때 려행한 고구려사람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고구려사신들이 수만리나 먼 나라에까지 가게 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나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던 고구려가 다른 나라들과 친선적으로 지내며 당나라의 침략책동을 저지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 300년전에 신라의 혜초라는 사람이 또 세계적인 려행을 하였습니다.

혜초는 불교를 믿는 중으로서 일찌기 당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시금 불교가 처음으로 생겨난 인디아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당나라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는 끝없이 넓은 바다를 가고 또 갔습니다.

혜초는 모진 고생끝에 드디여 인디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혜초는 인디아에 있는 5개의 작은 나라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는 서쪽으로 더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당나라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10년만에 당나라의 수도(오늘의 시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찌는듯 한 더위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을번도 하였습니다.

끝없이 넓은 사막은 락타를 타고 가야 하지만 락타가 없어 혼자서 방향을 잡으며 4 000리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혜초가 려행한 거리는 10만여리나 되였습니다.

혜초는 려행하는동안 보고 느낀것을 글로 써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형편, 먹는 음식, 옷차림새, 문화발전정도, 언어,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빠짐없이 적어놓았습니다.

후에 혜초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왕오천축국전》(다섯개의 천축국에 갔다온 이야기)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천축국에서 왕은 900마리의 코끼리와 100마리의 양이나 말을 가지고있고 귀족들은 3～5마리의 말을 가지고있는데 백성들은 단 한마리도 못가지고있었다.…

《왕오천축국전》은 혜초가 죽은지 1 100여년이 지난 1910년 중국의 어느 한 바위굴속에서 발견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혜초가 그때 돌아본 나라들의 형편을 자세히 알수 있게 합니다.

혜초는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혜초의 세계려행은 탐구심이 강하고 대담한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제16과. 가야금을 만든 우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 이 분야에서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속에는 이름난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1 500여년전 사람인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수많은 곡을 지었습니다.

그는 백제와 신라사이에 있던 가야라는 작은 나라에서 나서자랐습니다.

우륵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뜻을 두고 음악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 악기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던 끝에 마침내 훌륭한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기를 가야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륵은 가야가 점점 약해지면서 망해가자 제자인 니문을 데리고 가

야금을 타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다가 신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화창한 봄날이였습니다.

우륵은 제자 니문과 함께 가야금을 타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주고있었습니다.

때마침 산천구경을 떠나가던 왕이 그의 뛰여난 재간을 알고 그와 가까이 하게 되였습니다.

우륵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을 배워주면서 좋은 곡을 골라 련습시킨 다음 왕앞에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동되여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번은 왕의 가까이에서 일하는 간사한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야금에서 울리는 음악은 가야를 망친 음악이니 좋다고 널리 퍼뜨릴것이 못됩니다.》

참으로 암둔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륵은 저런 사람은 아첨군으로밖에 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음악을 만든것은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으로는 다 나타낼수 없는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것인데 어찌 음악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으로 되겠습니까?

음악이 나라가 약해지고 망해지는 원인으로 된다면 강해지는 나라에는 음악이 없고 망해가는 나라에만 음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륵은 나라가 강해지고 약해지는것은 음악에 있는것이 아니라고하면서 강해지는 나라에서는 음악을 바로 쓰고 약해지는 나라에서는 바로 쓰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간사한 관리는 그만 얼굴이 붉어져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신라에는《백결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재능있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문고를 잘 탔으며 많은 곡을 지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워 옷을 백군데나 기워입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결선

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거문고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든지 다 나타냈습니다.

어느해 설명절을 앞둔 날이였습니다.

이웃집들에서는 명절준비로 떡방아 찧는 소리가 그칠새 없었습니다. 쓸쓸한 방안에서 이 소리를 듣던 안해가 서글퍼서 푸념을 했습니다.

《남들은 명절맞을 떡방아를 찧고있는데 우리만 낟알이 없어 빈 방에 앉아있으니 무엇으로 설명절을 쇠겠나이까?》

그 소리에 백결선생이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남의 집 방아찧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우면 내 그대를 위해 방아노래를 지어 위로하리다.》

백결선생은 거문고를 당겨《쿵덕궁! 쿵덕궁!》하고 탔는데 그 소리가 신통히 방아찧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백결선생의 《방아타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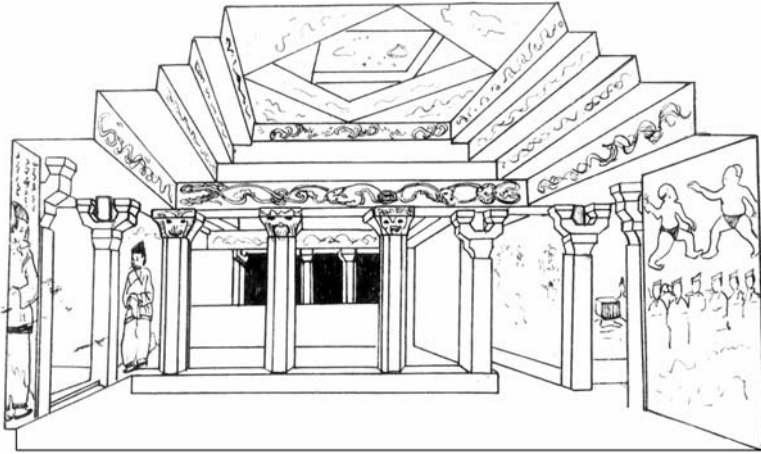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음악에서도 재능이 높았으며 세계에 자랑을 떨쳤습니다.

제17과. 이름난 고구려의 무덤벽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안악3호무덤과 강서세무덤을 비롯한 고구려고분의 벽화들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예술적재능과 고구려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면모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이나 높은 관리들은 죽어서도 살았을 때처럼 영원히 권세를 쓰면서 호강스럽게 지내려는 생각으로 무덤을 잘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구려무덤들은 그것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높은 예술적재능과 생활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고국원왕릉의 내부

황해남도 안악군에는 안악3호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 왕이 고국원왕이므로 고국원왕릉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덤은 고구려사람들의 건축재능과 그림재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릉입니다.

무덤안은 복도와 여러개의 방으로 되여있으며 벽체는 큰 돌을 통채로 매끈하게 다듬어세웠습니다.

벽화의 남자주인공

그리고 돌문은 한짝이 500kg이 넘지만 얼마나 묘하게 만들어 달았는지 손가락으로 밀어도 쉽게 열리고 닫깁니다.

기중기도, 돌을 깎는 기계도 없던 1 600여년전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손으로 돌을 다듬어 이러한 무덤을 만든것은 참으로 놀랄 지경입니다.

무덤은 비록 땅속에 건설했지만 땅우의 궁전같아 보입니다.

무덤의 벽과 천정에는 갖가지 그림들을 수많이 그려놓았습니다.

한 벽에는 왕이 위엄있게 앉아서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명령을 하는 장면과 호화롭게 차려입은 왕비가 녀자종들의 시중을 받고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벽화의 녀자주인공

다른 한 벽에는 우물에서 물을 긷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 외양간, 마구간, 고기창고 등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군악대를 앞세우고 수레를 탄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대행렬도》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무덤의 벽과 천정에는 문지기장수, 기발을 든 군사들, 나팔부는 악대와 춤추는 장면, 수박희장면, 하늘세계,《귀신》등 여러가

지 그림이 그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왕이 살아있을 때의 생활모습을 그린것입니다. 그림은 생동하게 잘 그렸을뿐아니라 그 색갈이 변하지 않은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을 그린지 1 600년이 훨씬 넘는데도 방금 색칠한것처럼 생생합니다.

참으로 고구려인민들은 돌을 다듬어서 무덤도 잘 만들었지만 돌벽에 그림 또한 잘 그렸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안의 벽에 그린 그림을 무덤벽화라고 합니다.

청 룡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에도 세개의 벽화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세개 있어 삼묘리라고 합니다.

강서세무덤들도 건축이 훌륭할뿐아니라 그림이 특출합니다. 큰 돌을 다듬어서 세운 벽에 청룡(푸른 룡), 백호(흰 범), 주작(붉은 새), 현무(검은 거북과 뱀)를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이 네개의 환상적인 동물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덤에 묻힌 사람을 지켜준다는것입니다.

사신도는 환상적인 동물들을 그린것이지만 실지 살아있는 동물같아 보입니다.

푸르스름한 새벽안개를 헤치고 힘차게 뛰여나오는 《청룡》의 비늘은 움직이는것 같고 꿈틀거리는 몸뚱이는 방금 하늘로 날아오를듯한 기상입니다.

《백호》 또한 방금 먹이를 덮치려는듯 뛰쳐나오고있는데 퉁방울눈과 억센 앞발의 발톱은 마치도 살아있는 범과 마주선감을 줍니다. 다른 그림들도 참으로 생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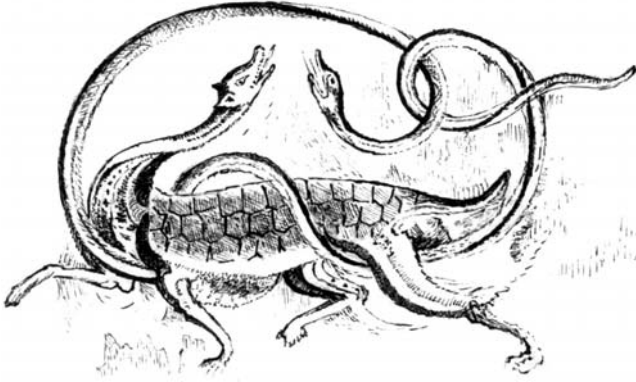
백 호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은 사람과 그들의 생활모습을 그린것, 사신도를 많이 그린것 등 여러가지입니다.

이러한 벽화들이 그려진 고구려의 무덤은 80여기나 됩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은 고구려인민들의 씩씩한 기상과 생활모습, 뛰여난 그림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주 작

현 무

제18과.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옛 모습

세상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만경대가 자리잡고 모란봉과 대성산이 솟아있으며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평양은 예로부터 《천하제일강산》으로 불리워옵니다.

오늘 평양의 공원과 유원지, 아름다운 거리들을 거니느라면 우리는 천수백년전 강성하였던 고구려시기의 유적과 유물들을 수많이 볼수 있습니다.

안학궁과 대성산성

평양에는 고구려시기에 쌓은 성들이 많습니다.

대성산남쪽기슭의 안학궁성은 왕궁자리였고 대성산성은 이 왕궁을 보위하는 방위성이였습니다.

안학궁은 지금 터자리만 있는데 그것만 보고도 고구려왕궁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그려볼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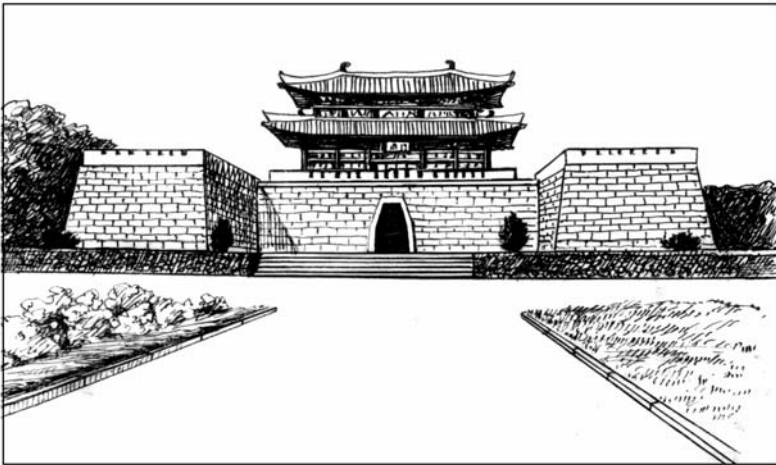
이 왕궁은 둘레가 거의 2 500m나 되는 궁성안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는 궁전, 왕이 일을 보는 궁전과 생활하는 궁전, 왕자리를 이을 사람이 사는 으리으리한 궁전들로서 모두 52개의 건물들이 처마를 맞대고있었습니다.

궁성안에는 크고작은 못들을 만들고 동산을 꾸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대성산에는 둘레가 거의 20리나 되는 산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대성산성은 수도성으로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면 그안에 들어가 싸우던 성새였습니다. 왕도 안학궁에서 대성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은 돌로 쌓았는데 높이가 4～11m나 되였습니다.

산성에는 군대병실과 무기창고, 식량창고 등 여러 건물과 99개의 못이 있어 오래동안 적들과 싸울수 있었습니다.

대성산성 남문

평양성과 대동문

고구려는 1 400여년전에 오늘의 평양시 중심부에 평양성을 쌓고 대성산일대로부터 수도를 옮겼습니다.

평양성은 모란봉으로부터 대동강기슭을 따라가다가 보통강, 창광산, 만수대를 지나 다시 모란봉까지 잇닿은 둘레가 40리나 되는 큰 성이였습니다.

성안에는 왕궁과 관청건물, 절간들, 살림집들이 가득 찼고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등 여러개의 성문들이 있었습니다.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대동문은 허리를 굽히면 대동강물을 퍼올릴 것 같고 일어서면 천리라도 내다볼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무게있어보이는 대동문은 고구려사람들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대동문

동명왕릉과 광법사

평양시에는 동명왕릉을 비롯하여 고구려시기의 수많은 무덤들과 절간들도 있습니다.

동명왕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다시금 새롭게 건설되였습니다.

동명왕릉의 웅장하고 장쾌한 릉문과 왕묘, 정릉사(절간), 여러가지 돌조각상들은 고구려인민의 용맹과 슬기를 그대로 나타내고있습니다.

이 정릉사와 대성산에 있는 광법사, 모란봉에 있었던 금강사 등은 이름난 고구려의 대표적인 절간들로서 여기에는 고구려인민의 뛰여난 건축기술이 잘 반영되여있습니다.

평양에는 그밖에도 고구려시기의 수많은 유적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유물들은 고조선의 뒤를 이어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번성하였던 고구려수도의 옛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제19과. 계백장군의 최후결전

1 340년전 백제에는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운 계백이라는 애국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이웃에 있는 신라통치배들은 서쪽의 바다건너에 있는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여 한겨레의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령토를 넓히려고 하였습니다. 아주 반역적인 죄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제의 의자왕은 밤낮 노래와 춤, 술놀이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점점 약해져가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제일 높은 벼슬을 하던 성충이라는 신하가 나라를 멸망에로 이끌어가는 방탕한 생활을 그만둘것을 왕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자왕은 성이 독같이 나서 성충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충은 감옥에 갇혀 죽으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탄현과 기벌포에서 막아야 한다고 왕에게 간곡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 41명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저들 왕족들만이 잘 먹고 잘 살자는것이였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이 많아지고 나라의 쌀창고는 텅 비였습니다. 수많은 인민들이 굶주려 죽고 쓰러졌습니다.

나라안에는 뒤숭숭한 소문이 자꾸 퍼졌습니다.

여우떼들이 왕궁안으로 밀려들어가 높은 관리의 의자를 타고앉았다느니, 수도의 우물과 강물이 피빛으로 변했다느니 하는것이였습니다.

또 땅속을 파보니 거북의 잔등에 《백제는 둥근달, 신라는 초생달》이라는 내용의 글이 씌여져있었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왕은 점쟁이를 불러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점쟁이가 《둥근달은 이지러지고 초생달은 둥근달로 커지니 백제는 약해지고 신라는 왕성해질것이라는 뜻입니다.》고 하였더니 왕은 당장 그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성이 난 왕은 다른 신하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둥근달은 백제가 성한다는 뜻이고 초생달은 신라가 약

하다는 뜻입니다.》고 하니 왕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평생을 왕에게 아첨하며 살아온 간신이였습니다.

이러한 때인 660년 7월 드디여 13만의 당나라침략군과 5만의 신라군이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신라군은 과연 성충의 말대로 탄현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때에야 의자왕은 깜짝 놀랐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둔한 의자왕은 옳은 방어전술을 내놓는 흥수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전술은 알지도 못하는 간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명의 백제군이 황산벌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백제군이 싸우기에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것은 신라군이 벌써 탄현을 넘어섰기때문입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이날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전날 밤을 고통속에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의자왕과 아첨군들이 증오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충이나 흥수가 내놓은 의견대로 적과 싸울수 없게 하니 래일 백제군은 격파되고 나라는 망할것이다. 우리의 안해와 자식들은 적들의 노예로 될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원쑤들의 노예로 내맡기랴. 차라리 재난을 당하기전에 목숨을 끊는것이 떳떳하리라…

계백은 독한 술을 연거퍼 들이키며 밤새껏 모대기다가 오늘의 싸움마당에 나왔던것입니다.

계백과 같이 백제의 병사들은 모두 끝까지 싸우다 떳떳이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드디여 당나라침략군과 신라군이 련합한《라당련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비록 5 000명이였으나 5만명의 신라군을 용감히 맞받아나갔습니다.

백제군은 계백의 지휘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신라군의 공격을 네차례나 물리쳤습니다.

계백은 결사대의 앞장에서 숨이 지는 순간까지 수많은 적을 찔러눕혔습니다.

그러나 백제군은 10배나 되는 신라군에게 끝내 패하고말았습니다.

드디여 당나라침략군과 신라군은 백제의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수도가 점령되자 의자왕은 인민들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운 애국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전해오고있습니다.

제20과. 조선사람의 지조를 지킨 박제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원쑤앞에 굴할줄 모르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이다.》

옛날 《삼국사기》라는 력사책에는 조선사람의 굳센 지조를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있습니다.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몇년만에 고구려에서 돌아온 동생 보해를 만난 신라의 눌지왕은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돌려보내준 겨레의 나라 고구려의 장수왕을 대강국의 국왕답다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보해는 몇해전에 신라가 고구려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보냈던 왕자였습니다.

눌지왕은 보해를 만나고보니 왜국에 가있는 다른 동생 미해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미해도 역시 10여년전에 신라가 왜국에 보냈던 왕자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눌지왕의 심정을 헤아려본 박제상이 왜국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박제상은 안해와 자식들에게도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돛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다운 고국산천이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이때로부터 며칠후 왜나라 왕은 신라에서 도망쳐왔다는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신라왕은 죄없는 아버지와 형님을 죽이고 소인까지 잡으려 하나

이다. 불쌍히 여겨 보호해주사이다.》

그는 박제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간교한 왜왕은 《도망쳐온》 신라사람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신라에 쳐들어갔다가 도망쳐온 왜국의 군사들이 박제상이 나라를 반역하고 도망쳐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신라안에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왕은 박제상을 믿었습니다.

왜왕은 박제상을 미해와 같이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어느날 아침 박제상은 미해와 함께 배를 타고 섬의 외딴 기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해에게 배와 노를 넘겨주면서 어서 고국으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군을 아버지로, 은인으로 받들고있는데 어찌 나만 살겠다고 혼자 떠나겠소이까.》 미해가 목메여 말했습니다.

《아니올시다. 만약 두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자들이 인차 따라올것이며 일은 틀려지고말것입니다.》

박제상은 미해의 배가 멀리 사라진 다음에야 길을 에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는척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미해의 시중을 들던 왜인이 그가 어디에 갔는가고 물었습니다.

박제상이 아직도 잔다고 대답하자 왜인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

얼마 후 펄펄 뛰는 왜왕앞에 박제상이 끌려갔습니다.

《너는 왜 우리 나라에 와있던 왕자를 몰래 신라로 빼돌렸느냐?》

왜왕이 금시 잡아먹을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계림(신라)의 신하이지 왜국의 신하는 아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박제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계림의 신하라고? 너는 우리 나라에 넘어온 나의 신하가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신하라고만 하면 높은 벼슬과 상을 주겠다.》

왜왕은 가까스로 분을 참고 말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로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매는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상은 받지 않겠다.》

박제상의 목소리는 침착하였습니다.

왜왕은 불에 덴 승냥이처럼 날뛰였습니다.

왜왕은 박제상의 발바닥가죽을 벗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갈을 베여낸 갈밭을 걷게 하였습니다. 갈그루에 찔린 발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왜왕이 또 물었습니다.

《나는 계림의 신하다.》

박제상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왜왕은 펄펄 뛰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제상에게 뻘겋게 달군 철판우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나는 계림의 신하다!》

드디여 왜왕은 박제상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고 그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애국심이 강한 조선인민은 그 어떤 원쑤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는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21과. 구진천과 천보노

어느날 당나라왕에게 놀라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신라의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천보노라는 위력한 무기를 발명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천보노는 화살을 1 000보나 날려보내는 기계활이였습니다.

당나라활은 기껏해야 100보밖에 화살을 날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군대는 천보노만 나타나면 무서워 달아난다는것이였습니다.

거만한 당나라왕은 저희같이 큰 나라에서도 화살을 100보밖에 날리지 못하는데 작은 나라인 신라의 화살이 1 000보나 날아간다는데 심술이 났습니다.

더구나 어느때든지 신라를 침략하려고 꿈꾸던 그에게 있어서 천보

노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천보노를 만들어 가질수 있을가…

두루 생각하던 당나라왕은 구진천을 초청해다 잘 대접하여 천보노를 만드는 비밀을 알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당나라왕의 초청을 받은 신라왕은 할수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당나라로 가게 된 구진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몸이 죽더라도 당나라에 진짜 천보노를 만들어줄수는 없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지 않는가.

기어이 천보노의 비밀을 지키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구진천을 실은 돛배는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멀어져갔습니다.

오랜 려행끝에 구진천은 당나라수도에 이르렀습니다.

당나라왕은 갖가지 향기로운 과일과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히 차려놓고 구진천을 청하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귀한 손님이니 어려워말고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오.》

왕은 궁궐에서도 흔히 쓰지 않는 귀한 술을 부어주며 구진천의 마음을 끌려고 하였습니다.

구진천은 왕의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향기로운 술맛보다 천보노의 비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찼습니다.

얼마 후부터 구진천은 부지런히 뚝딱거리며 활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달이 지나도 활을 다 만들었다는 소식이 없어 왕은 신하들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구진천에게 왕이 빨리 천보노를 보고싶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진천은《이 나라에 없는 유명한 노를 만들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고 하면서 계속 뜯었다붙였다 하였습니다.

드디여 한해가 지나 활을 시험하는 날이 왔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나왔고 활 만드는 기술자들도 수많이 모였습니다.

노는 보기만 해도 훌륭했습니다.

화살을 1 000보이상 쉽게 날려보낼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며 구진천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진천은 천천히 활줄을 당겨 갈구리에 걸고 깍지손을 뗐습니다.

핑!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환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였습니다.

화살은 겨우 30보를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의 나라에서 1 000보를 난다는 활이 왜 30보밖에 날지 못하는고?》

왕은 구진천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것도 잊은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송하오나 소인도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무가 우리 나라것보다 나빠서 그런가 하옵니다.》

구진천이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당나라왕은 곧 신하들에게 신라의 나무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천보노를 만드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였습니다.

당나라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라에 가서 나무를 찍고 말리워 실어가는데 1년이라는 기일이 걸렸습니다.

고국의 나무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를 맡은 구진천의 마음은 짜릿해왔습니다. 그 향기는 절대로 1 000보를 날아가는 활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속삭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때로부터 또 한해가 지나서야 새로 만든 활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활은 60보밖에 날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왕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소금기를 받아 그런가 하옵니다.》

구진천이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감히 뉘앞이라고 거짓말이냐. 저놈을 당장 잡아가두어라.》

감옥에 갇힌 구진천은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고향산천을 생각하였습니다.

당나라왕은 여러번 구진천을 불러내다가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했으나 끝내 천보노의 비밀을 알아낼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구진천을 죽이고싶었으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렇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그후 여러달이 지나서야 구진천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천보노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 구진천에게 사찬이라는 벼슬을 주어 표창하였습니다.

제22과. 이름난 화가 솔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옛날의 이름난 화가 솔거는 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잘 그려놓았던지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소나무인줄로 알고 거기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솔거는 지금으로부터 천수백년전에 산 신라의 이름난 화가였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여났습니다.

솔거는 어려서부터 그림재간이 뛰여났습니다. 그러나 살림이 가난한데다가 시골에서 살았기때문에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붓도, 색감도, 종이도 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끼니는 건너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내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는 산에 나무하러 가면 칡뿌리를 캐여 붓삼아 바위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밭에 나가서는 호미로 땅우에 그림을 그리군 하면서 쉬지 않고 그림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거는 마침내 신라에서 으뜸가는 화가로 자라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른아침에 한 점잖은 사람이 솔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황룡사라는 큰 절간에 제일 훌륭한 그림을 그려달라는것이였습니다.

솔거는 자기의 그림솜씨가 변변치 못하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은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 늙은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늙은 소나무는 수백년세월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자라온듯 줄기는 거북잔등처럼 터실터실하고 새파란 솔잎은 방금 이슬을 머금은듯 반짝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생생한 소나무와 같았습니다.

그 늙은 소나무그림이 어찌나 생동하였던지 새들이 날아들다가는

그만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림은 더욱 유명한 그림으로 소문나게 되였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림은 알릴듯말듯 색이 날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쉽게 생각한 절간의 중들은 제일 좋은 색감과 붓을 골라 솔거가 그린 늙은 소나무에 다시 색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림솜씨도 보통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로부터 늙은 소나무에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중들은 아무리 애를 썼어도 솔거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그림솜씨를 따를수 없었던것입니다.

솔거는 그밖에도 여러 절간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솔거는 또한 고조선을 세운 왕인 단군의 초상을 1 000장이나 그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솔거가 단군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떠받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때 신라사람들도 모두 단군을 조선민족의 첫 조상으로 받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솔거가 그린 단군의 초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23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반기에 벌써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설하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상북도 경주에는 633년부터 647년사이에 건설한 첨성대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첨성대란 오늘날의 천문대와 같은것입니다.

첨성대꼭대기에는 날씨와 별들을 관찰하는 기구들을 올려놓는 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매일 쉬임없이 하늘을 살펴보면서 바람과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며 날씨가 어떤가를 알아냈습니다.

또한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일을 기상천문관측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연구사업을 하여 달력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농사하는데 써먹었습니다.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곡식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경주첨성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문대들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것입니다.

첨성대

세계에는 오래전에 세워진 천문대들도 있었으나 거의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것들은 그후에 다시 세운것들입니다.

오랜 옛날에 세워져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경주첨성대뿐입니다.

이것은 첨성대가 아주 든든하고 훌륭하게 건설되였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첨성대는 잘 다듬은 돌을 벽돌처럼 올려쌓았습니다. 마치도 아름다운 꽃병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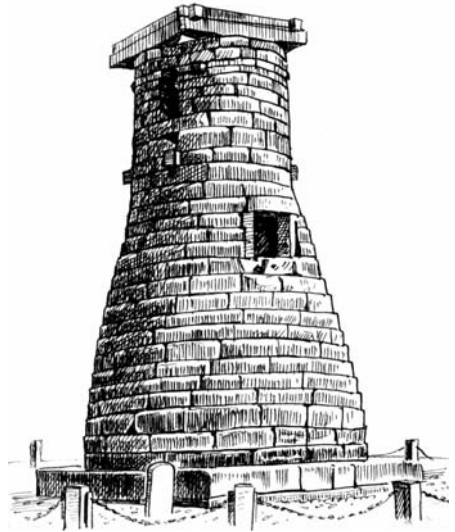
첨성대중간에는 관측대우로 나들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그 아래와 우에 각각 12돌기의 돌을 쌓았습니다.

아래우에 돌을 쌓은 돌기가 같으니까 그 높이도 같아야겠는데 아래부분이 더 높아보입니다. 그것은 우로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돌을 얇게 다듬어 쌓았기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첨성대에 깃든 선조들의 재능을 알수 있습니다.

첨성대의 높이는 9.1m, 밑부분의 직경은 4.9m, 웃부분의 직경은 거의 2.9m입니다.

첨성대꼭대기의 기구틀은 귀틀형식으로 짜서 올려놓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네모난 구멍으로는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 기구틀에 올

라가 하늘을 살피였습니다.

당시 때아니게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초겨울에 더웠던 일 등 여러 가지 관측자료들이 옛날 책에 기록되여 전해옵니다.

고구려에서도 수도 평양에 천문대를 세워놓고 천문기상현상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천문대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천문대를 세워놓고 기상천문현상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제24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당시의 건축술의 발전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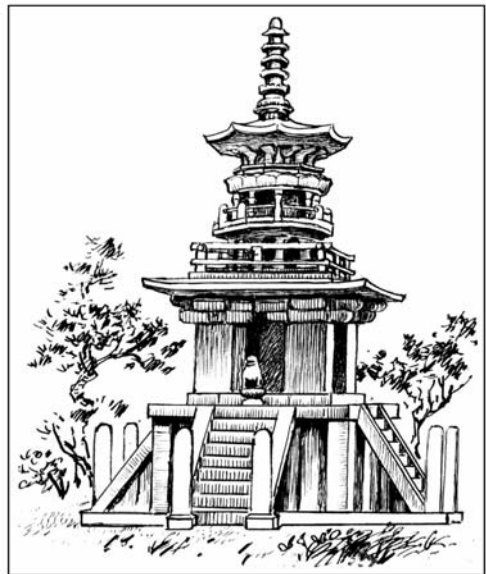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주의 불국사라는 절간앞에는 돌을 다듬어 훌륭하게 쌓은 두 탑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보탑이고 다른 하나는 석가탑입니다.

보면 볼수록 옛날 우리 선조들의 재간이 대단했구나 하는것이 느껴집니다.

다보탑은 높이 10m가 넘는 4층탑입니다.

지금처럼 돌을 다듬는 기계가 없던 오랜 옛날에 망치와 정을 가지고 굳은 돌을 얼마나 잘 다듬어 쌓았는지 마치도 나무를 깎아만든것 같습니다.

다보탑은 복잡하게 되여있지만 어느 부분이나 꼭꼭 정확히 맞물려있어 흠잡을데가 없습니다.

석가탑도 돌을 다듬어쌓은 3층 탑인데 높이는 8m가 넘습

다보탑

니다. 겉모양은 복잡하지 않고 무게있어 보입니다.

다보탑은 아름다운 녀성 같다면 석가탑은 의젓하고 듬직한 남자같습니다.

석가탑에는 이런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익산이라는 고을에 뛰여난 재간을 가진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굳은 돌이라도 쩍쩍 가르고 쪼아서 사람이나 짐승모양을 만들었는데 신통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못할뿐이였습니다.

석가탑

석공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불국사앞에 돌탑을 세우기 위하여 재간있는 석공들을 찾던 중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들은 석공을 불국사의 돌탑건설에 끌어갔습니다. 3년동안 석가탑을 만드는 일을 하라는것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랑하는 안해를 두고 온 석공은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어느덧 3년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중들은 약속대로 석공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붙들어두었습니다.

석공의 안해는 뜰앞에 서있는 살구꽃이 필 때마다 올해에는 남편이 돌아오려나 하고 안타깝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키높이 자란 감나무잎마저 다 떨어지고 감알들이 빨갛게 무르익을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나날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더는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다고 생각한 안해는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령을 넘고 들을 지나 먼길을 걸어오는 동안 안해는 발이 부르트고 길량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남편을 만날 행복한 순간을 그리며 힘을 내여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여 몇달만에 안해는 불국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중과 관리들은《신성한 부처》를 위해 세우는 탑이 있는 곳에 녀자는 갈수 없다고 하면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였습니다.

10년동안이나 간직하고 살아온 한가닥 희망마저 이룰수 없게 된 석공의 안해는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다가 련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문뜩 련못을 들여다보던 안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련못안에는 돌탑이 우뚝 솟아나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안해의 가슴은 쿵쿵 뛰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고요한 련못가에 녀인의 애절한 부르짖음과 함께《풍덩!》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모대기던 석공의 안해가 그만 련못에 뛰여들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련못에 비치던 석가탑의 그림자가 그후 다시는 비쳐지지 않고 영영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탑을 무영탑(그림자없는 탑)이라고 부르게 되였답니다.

제25과. 붉은 바지를 입고 싸운 사람들

1 100여년전 신라에서는 큰 농민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라의 진성녀왕은 어지러워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애쓸 대신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잔치와 놀이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라의 관리들 역시 오래전부터 나라와 인민은 돌보지 않고 술놀이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일로 바쁜 인민들을 끌어내여 림해전이라는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옆에는 포석정이라는 술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포석정은 너럭바위에 물홈을 둘러 파서 물이 흐르게 하고 거기에 술잔을 띄워놓으면 술잔이 떠내려오게 만든것입니다.

왕과 관리들은 매일과 같이 여기에 모여앉아 춤추고 노래하며 먹자판을 벌리였습니다.

한편 신라통치배들은 가난한 인민들로부터 농사지은 곡식과 갖가지 재물들을 끝없이 빼앗아가고 궁전과 놀이장건설에 인민들을 마구 내몰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은 쌓이고쌓였습니다.

나라의 곳곳에서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폭동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원종과 애노가 지휘하는 농민폭동이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는 《붉은옷》, 《누런옷》부대들이 조직되여 힘차게 싸웠습니다.

붉은옷, 누런옷으로 표식을 한 부대들은 자기들의 투쟁이 옳고 또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눈에 띄는 옷을 입었던것입니다.

이러한 때 신라 서남쪽의 지리산부근에서 《붉은바지농민군》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붉은바지농민군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붉은 바지를 입은것으로 표식을 하였기때문입니다.

붉은바지농민군은 통치배들로부터 무기를 빼앗고 참대나무창이나 괭이, 낫 등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농민군은 대장을 선출하고 대장기발을 휘날리며 신라의 수도를 향

하여 진격하였습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창과 칼, 몽둥이로 무장한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농민군은 여러 고을을 치면서 악질관리들을 죽이고 창고를 열어 쌀과 천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은 농민군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느때는 제노라고 호통을 치며 농민들을 못살게 굴던 통치배들이였지만 인민들이 다같이 들고일어나니 옴짝 못했습니다.

붉은바지농민폭동

가장 악착하면서도 제일 비겁하고 잘난체 하면서도 가장 비굴한것들이 바로 권력과 재물밖에 모르는 통치배들이였습니다.

농민군이 지나간 고을마다에서는 관리들이 죽거나 쫓겨나서 백성들이 기를 펴게 되였습니다.

붉은바지농민군은 수백리나 되는 신라의 수도 경주근처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신라통치배들은 너무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군대조차 내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붉은바지농민군이 수도가까이까지 쳐들어갈수 있은것은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농민군이 도와주었기때문입니다.

붉은바지농민군은 봉건통치배들을 처단하고 곡식과 재물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신라왕궁을 목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끝내 수도를 점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았던것입니다.

그러나 농민폭동은 신라봉건국가를 더욱더 약하게 하여 멀지 않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6과. 대조영과 천문령싸움

거의 천년동안이나 강대한 나라로 세상에 이름떨치던 고구려는 668년에 당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라통치배들이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이고 고구려의 일부 통치배들속에서 당나라침략자들과 손을 잡은 반역자들이 나왔기때문입니다.

나라를 강점당한 고구려인민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내쫓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싸움을 벌렸습니다.

696년 5월에는 중국땅인 영주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군은 영주성을 들이쳐 당나라침략자들을 쫓아버렸습니다.

10여일동안에 폭동군은 수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했습니다.

영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고구려사람들은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였던 대조영의 지휘밑에 전투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동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당나라침략자들이 고구려폭동군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적들은 얼마전에 다른 갈래의 폭동군과 싸워 이겼으므로 기세가등등했습니다. 이 폭동군과 싸워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를 쓰고 따라왔습니다.

고구려폭동군의 총대장인 대조영은 쫓기는척 하면서 부대를 더 깊이 험한 산속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당나라침략군은 끈을 매서 끄는것처럼 슬슬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금시 잡을듯말듯 폭동군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량옆에 까마득한 절

벽이 나졌습니다.

굴속에 들어온듯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금시 벼랑이 와르르 무너질것 같았습니다.

길이 없어지거나 막힌듯 저앞에 하늘을 쭉 가로막고 솟아있는 어둑컴컴한 그림자는 고구려폭동군이 사라진 천문령이였습니다.

그 천문령 절벽우에 장검을 빼든 한 장수가 올라섰습니다.

그아래에는 폭동군사들이 활과 창, 칼을 틀어쥐고있었습니다.

폭동군을 얕보고 정신없이 따라온 당나라침략군은 절벽으로 둘러막힌 령길에 오골오골 몰켜들었습니다.

그뒤에도 우줄우줄 따라오는 적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었습니다.

폭동군은 천문령의 어느 모퉁이나 모조리 차지하고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자란 아름드리나무와 무성한 숲은 폭동군을 감춘채 정적속에 잠겼습니다.

천문령싸움

바로 이때였습니다.

둥… 둥… 둥…

요란한 북소리가 천문령의 골짜기들에 메아리치더니 하늘에서 돌사태가 쏟아져내렸습니다.

절벽우에서 퍼붓는 폭동군의 돌벼락이였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비오듯 했습니다.

당나라침략군은 순식간에 녹아나고말았습니다.

겁에 질려 가까스로 뒤따라오던 적들이 정신없이 산으로 올라붙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빠질 구멍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내빼면 화살이 잔등에 박히고 수풀속에 몸을 숨기면 어느새 칼날이 번쩍했습니다.

바위돌을 안고 살살 돌아가는 적들은 창끝이 동가슴을 찔렀습니다.

폭동군을 잡겠다던 적들이 다 잡혀죽었습니다.

천문령전투에서 당나라침략군의 우두머리 리해고는 겨우 수풀속에 숨어있다가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천문령전투에서 승리한 폭동군은 계속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당나라침략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폭동군은 드디여 동모산(둔화현 오동성자리)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영주에서부터 2천리나 먼곳이였습니다. 남쪽으로 몇백리만 가면 조선의 백두산이 있는 곳이였습니다. 큰 강이 흐르고 넓은 벌이 펼쳐졌으며 멀리로는 큰 산들이 빙 둘러막혔습니다.

여기에 수도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운다면 참 좋을것 같았습니다.

폭동군총대장 대조영은 더 많은 고구려사람들을 여기로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고낮은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성을 쌓고 그안에는 왕궁과 관청건물을 지었습니다. 주위에는 요새를 건설하여 적들의 침입을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조영은 이렇게 하여 강대했던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발해》를 세웠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1 300여년전인 698년이였습니다.

발해라는 나라이름은 고구려와 같이 강대한 나라로 그 위력을 떨치려는 희망을 담아 지은것입니다.

제27과.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찬란한 아침해살이 눈부시게 비쳐드는 깊은 수림속으로 세 젊은이가 가고있었습니다.

3월 3일날에 벌릴 사냥경기터를 새로 마련해보라는 마을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난 발해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으흥!》하는 소리와 함께 송아지만 한 호랑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청년이 날쌔게 몽둥이를 잡고 호랑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호랑이가 두 앞발을 쳐들고 날아들었습니다.

호랑이를 노려보던 다른 두 친구가 얏— 소리를 치며 두발로 땅을 차는 순간 호랑이의 뒤다리가 그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무거운 대가리가 땅에 처박히려는것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옴짝 못하고 이마빡을 참나무몽둥이에 연거퍼 얻어맞은 호랑이는 한참 버둥거리다가 그만에야 척 늘어지고말았습니다.

세 젊은이가 호랑이를 둘러메고 마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환성을 올린것은 아이들이였습니다.

이날 온 동네가 벅작 끓은것은 더말할나위 없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발해사람 셋이 모이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는 소리는 이런데서 나온것이였습니다.

발해사람들은 무술을 즐기고 일상적으로 련마한 고구려사람들의 후손이였으므로 역시 용맹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해가 선후 당나라는 또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말갈족을 부추겨 발해와 싸우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해는 말갈족을 들이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장문휴를 대장으로 하는 수군으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여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나라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틈을 타서 고구려의 옛땅을 하나하나 되찾아나갔습니다. 이리하여 발해는 사방 수천리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진 큰 나라로 되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뒤이어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때문에 경제도 발전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곡식과 남새, 과일을 심어 가꾸었으며 농사도구도 갖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넓은 풀밭에서는 돼지, 소, 말,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발해의 수공업자들은 금, 은, 구리로 귀걸이, 팔찌, 구슬 등 여러가지 치레거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발해와 후기신라의 위치도

사기그릇도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자분》이라는 자지빛사기그릇은 당나라에 많이 팔리웠습니다.

당나라사람들은 이 자지빛사기가 함지만큼 많이 들고 두께는 두텁지만 새털과 같이 가볍다고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발해에는 바다와 호수가 많아 여러가지 물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발해는 신라(후기신라)와 당나라, 일본 등과 무역도 많이 하면서 이 나라들에 자기의 발전된 문화를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를 계승하여 세워진 나라 발해는 한창 번성하면서 세상에 널리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제28과. 발해의 사신 양태사

대조영이 발해를 세운지도 50여년이 지난 어느해였습니다.

발해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발해에서는 누구를 일본에 보내야 교활한 일본왕과 관리들을 설복할수 있겠는가를 토론하였습니다.

발해왕궁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많은 양태사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임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양태사는 사랑방에서 조용히 앞으로 할 일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뜩 똑딱똑딱 귀에 익은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말없이 자기를 시중들며 도와준 어진 안해의 다듬이질소리였습니다. 먼길 떠날 남편의 옷을 정성다해 손질하는것이였습니다.

가락맞게 울리는 다듬이질소리는 정다운 안해와 집과 고향,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리별의 서글픔을 자아냈습니다.

영원히 어디가든 이 밤의 다듬이질소리는 잊혀지지 않을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얼마후 양태사는 낯선 일본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왕과 관리들을 만나 일본이 침략책동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왕은 양태사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태사가 좋은 말로 얼려도 보고 여러가지로 노력해보았지만 일본왕은 고집불통이였습니다.

일본왕의 마음을 돌려세울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어디선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똑딱똑딱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양태사의 마음을 고향집뜨락으로 이끌어가며 조국과 고향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차게 했습니다.

양태사는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궁궁 뛰는 가슴속에 격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격정을 종이우에 써내려갔습니다.

서리찬 가을달밤에
은하수 유난히 빛나고
나그네 고향생각
시름 더욱 깊어가네

다음날 양태사는 또다시 일본왕을 만나 담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관리들은 먼저 자기들과 담판하자고 하였습니다.

양태사는 그에 응했습니다.

그는 담판에서 당신네 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욕을 계속 품고있겠는가 아니면 좋게 지내겠는가 똑똑히 대답하라고 들이댔습니다.

사리에 맞는 양태사의 말에 말문이 막힌 일본관리들은 대답을 피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문뜩 족자에 활달한 글씨로 쭉쭉 내리 쓴 시 한수를 보게 되였습니다.

간밤에 양태사가 쓴것이였습니다.

일본관리들은 저마다 시를 읽어보며 깊은 뜻과 애국의 열정에 감탄하였습니다.

한 관리가 양태사에게 부탁을 하여 시를 쓴 족자를 가지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는 족자를 왕에게 보였습니다.

왕은 시를 보더니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얼마후에 돌아온 그 관리는 양태사에게 시를 자기 나라의 보물로 보존하겠으니 자기들에게 꼭 달라고 하였습니다.

양태사는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고맙다고 몇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양태사의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되여 일본의 력사책에 실려 지금까지 전해오게 되였습니다.

일본왕은 양태사의 재능과 애국심은 곧 발해사람들뿐아니라 조선사람모두의 기질이며 슬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라에 함부로 쳐들어갈수 없다고 생각한 일본왕은 드디여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발해사신 양태사는 그후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양태사에게는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안해가 세상을 떠났던것입니다.

양태사의 귀가에는 어진 안해의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외적의 침략위험으로부터 구원한 발해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양태사는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일본을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제29과. 법륭사에 그린 담징의 그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고대일본의 문화발전에 준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일본땅에 건너가 살면서 그곳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땅에 건너가기 전 그곳은 아직 갈대가 무성한 들판이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돌도구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나 만들어쓰고있었습니다. 아직 보습으로 밭을 갈고 농사할줄도 모르고 천이나 옷이라는것도 잘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일본땅에 건너간 우리 선조들이 그곳의 문화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동남쪽에는 《영일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해를 맞이하는 바다가라는 뜻입니다.

오랜 옛날 이곳에서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연오랑은 1년을 하루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연오랑은 바다에 나갔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는 변함없이 출렁이면서 그를 반기는듯싶었습니다.

연오랑이 바위우에 신발을 벗어놓고 쪽배를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웬일인지 그 바위가 움직이더니 뭍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둥실둥

실 어디론가 흘러가는것이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연오랑도 그냥 바위를 타고 정처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기다리던 세오녀는 바다가로 나갔습니다.

바위우에는 남편의 신발만이 뎅그라니 남아있었습니다.

《여보!》

안해는 남편을 찾고 또 찾았으나 들려오는것은 파도소리뿐이였습니다.

세오녀는 남편의 신발을 들고 바위우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또 바위가 움씰거리더니 어느 사이에 바다멀리로 흘러가는것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그들을 찾아오라는 령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연오랑부부를 찾아다니다가 어느새 일본땅에 이르렀습니다.

연오랑은 거기에서 작은 나라를 세우고 왕노릇을 하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니《우리가 이곳에서 작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있는데 어떻게 가겠는가. 우리는 이곳 사람들에게 배워줄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우리가 있어야 이 땅과 여기 사람들이 문명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이 일본땅에 건너가 많은것을 배워주고 문화를 발전시킨 사실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땅에 건너가서 성을 쌓고 작은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글을 배워주고 벼농사법, 의학기술, 금속도구제조기술, 도자기제조기술, 비단짜기, 종이생산, 건축기술, 그림그리기를 널리 보급했습니다.

지어는 왕의 정치를 도와주는 선생노릇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선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남보다 일찌기 발전하였으며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일본땅에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현에는 백제사람들이 지은 법륭사라는 절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610년에 일본에 초빙되여간 고구려의 화가 담징은 불교를 선전하는 6편의 《아미타여래

상》을 그렸습니다.

법륭사의 금당벽에 그려진 이 그림은 아쉽게도 1940년대말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후에 수많은 이름난 화가들이 달라붙어 다시 그려놓았지만 본래것보다 못하다고 그들자신이 말하고있습니다.

담징의 벽화는 그만큼 훌륭하게 잘된 그림이였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건축도 많이 하고 그림도 그려야 했는데 재간있는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많은 학자, 기술자들을 초청하였던것입니다.

담징은 일본에 가서 그림만 그려준 단순한 화가인것이 아니라 그곳에 종이, 채색, 먹 만드는 방법, 물방아 만드는 기술도 배워준 고구려의 재능있는 학자이며 기술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일본땅에 건너가 그곳의 문화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